



---

## 격월간

## 중국을 주제로

1992. 9. 10

## 목차

---

### 말씀

|                  |   |
|------------------|---|
| 중국인에게도 행복을/위화 목사 | 2 |
|------------------|---|

### 특집

|                                     |    |
|-------------------------------------|----|
|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김종운 교수                 | 6  |
| 정도를 건자/유관지 목사                       | 8  |
| 한중수교와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利」·「禮」·「理」/유운성 교수 | 10 |
| 한중수교와 학술문화교류 전망/이영구 교수              | 12 |
| 한중수교와 중국선교/이요한 총무                   | 14 |

### 교수칼럼

|             |    |
|-------------|----|
| 두 노인/전인영 교수 | 18 |
|-------------|----|

### 탐방·스케치

|                  |    |
|------------------|----|
| 인천 외향선교회를 가다/박혜영 | 20 |
| 중국어로 선교를/박혜영     | 22 |

### 연구·세미나

|                     |    |
|---------------------|----|
| 중국 삼자교회의 이해/왕쓰웨 연구원 | 24 |
| 가정교회의 분열과 문제점/牧民    | 28 |

### 인물·간증

|                    |    |
|--------------------|----|
| 사랑이 충만했던 여의료전도사/康成 | 34 |
| 곳곳마다 만난 하나님의 성소/芮虎 | 36 |

### 선교상식

|                   |    |
|-------------------|----|
| 중국의 민속 풍물이야기-秋收祭  | 38 |
| 중국여행상식            | 40 |
| 한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 43 |
| 중국선교 참고도서         | 44 |
| 그림으로 배우는 선교중국어    | 46 |
| 중국어로 찬양을          | 48 |

### 소식·기도

|             |    |
|-------------|----|
| 최근 중국 동향    | 49 |
|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 59 |
| 소식          | 60 |



# 중국인에게도 행복을

위화 목사(Acts 교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니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스가랴 8:20~23)

BC 221년에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전제주의 중앙집권제를 창건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는 한 몸에 권력을 쥐고자 하였습니다. 그는 전설 속의 3황 5제의 존호를 절충하며 스스로를 始皇帝라 칭하고 후세의 자손은 대대손손으로 그를 이어 2세황제 3세황제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진시황은 비록 국가의 모든 것을 소유했지만 이러한 것들에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제나라의 방사인 서복이 바다에 蓬萊 方丈 瀛洲의 세 신산에 선인들과 불로약이 있다고 아뢰었을 때 그는 곧 몇 천 명의 소년 소녀들을 이끌고 바다에 들어가 그것을 찾아 오도록 서복을 파견했습니다. 진시황은 당시의 모든 행복을 누리하고자 하였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현세에서 영원히 모든 행복을 소유하기를 갈구했습니다. 이는 중국 특유의 행복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고 스스로가 행복하기를 원함

니다. 이것은 시공을 초월하는 사실이요, 유럽, 미주, 아시아, 아프리카, 사람을 막론하고 모두가 갖고 있는 인생의 목표요, 모든 인류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행복입니까?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 것입니까? 이 해답에 대해서는 혹은 모두 일리가 있고 틀린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빈곤과 질병으로 곤란을 받는 사람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풍부하고 젊고 건강한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또한 공부하는 자들은 비록 공부할 때는 알아주는 자 없지만 일거에 천하에 그 이름이 알려지는 것을 행복으로 여깁니다. 염치없는 정치가들은 왕과 백성을 손바닥 안에 놓고 그들의 뜻을 이루는 것을 행복이라고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五子登科」를 그 행복으로 여기는데 이 '五子'란 妻子(부인), 兒子(아들), 帽子(모자), 車子(차), 房子(집)를 뜻합니다. 또 「一, 二, 三, 四」를 행복으로 여깁니다. 1, 2, 3, 4란 한 명의 부인, 두 명의 아들 3개의 방이 갖춰진 집, 4개의 바퀴를 갖고 있는 차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마다 각기 말하는 수많은 대답들 중에 하나의 공통점, 하나로 귀납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용어로 해석하자면 그것은 함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바로 자기가 소원하는 사람, 일 또는 물건과 '함께하는', 바꿔 말하면 영원히 함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는 또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이요,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의 구원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사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람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우리 같이 성경을 몇 군데 봅시다. 먼저 우리들이 가장 익숙한 구절인 요한복음 3:16을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은 로마서 5:8을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9~10을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몇몇 구절을 귀납해 보면 사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히 그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하심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간단한 말로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구약에서 신약까지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가장 크고 가장 귀중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임마누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과 제가 바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

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행복관, 여러분과 나의 행복, 기독교의 구원,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히 여러분과 나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중국학자들은 매우 독단적으로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종교라고 비평합니다. 그것은 단지 성경의 한두 구절을 사용하여 성경 전체를 해석하려 하거나 또는 근본적으로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행복관, 구원관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습니다. 로마서 9:3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했습니다. 설령 자기의 행복을 희생하고 심지어 끊어질 수 없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 역시 골로새서 1:23에 "이 복음은 너희가 들은 바요 또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시편 8:4에는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요한복음 3:16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베드로후서 3:9에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등의 말씀과 같이 사람과 모든 피조물에 미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도 단지 우리 혹은 이미 구원을 받은 기독교인들과만 함께하심이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요10:16)과도 함께하시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구원되어야 될, 다른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명실상부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들이 고백하고 확신하는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다른 ‘우리’들은 잊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말씀을 따라(마28:19) 우리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은 행복의 사절단이 되어 행복을 갈망하는 자들 속으로 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는 10억이 넘는 사람들이 행복을 갈급해 하며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행복하리라 여기고, 혹은 원하던 직업을 구하면 곧 행복해지리라 여깁니다. 혹은 장사가 잘 되면 행복할 수 있고, 혹은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만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결코 그들에게 진실하고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세상에선 창조주가 피조물과 함께하는 행복 외에 더 진정하고 영원한 행복은 없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진실한 행복을 이해하며 찾고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우리들이 당연히 중국사람들 가운데 가서,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만복의 근원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중국사람들을 우리들처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필요조건들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렇게 더운 날씨에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은 충분조건을 구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충분 조건입니까? 심태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그것은 중국인을 사랑하고, 중국의 모두 사람들을 행

복하게 해주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기까지 아끼지 않는 마음가짐입니다. 지식적으로는 중국어로 중국사람과 의사를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이 중국어 중 주요한 것이 한어이지만 필요할 때는 현지의 방언과 소수민족의 언어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어느 정도의 중국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성적인 면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늘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해야 하고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해야 합니다.(엡4:13) 또한 진리의 말씀에 날로 정진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딤후 2:15)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는 일정한 신학 훈련을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행복은 모든 사람이 추구하고 사람마다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사람마다 구하는 행복은, 다만 행복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심지어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나님만이 행복이시고 다만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만이 진실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행복이 결코 다만 여러분과 나의 전유물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행복을 갈망하는 중국사람들이 얻게끔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바로 여러분과 제가 존재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신성한 사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진실로 행복한 사람으로 자부하십니까? 저 10억 중국인들의 행복을 갈망하는 외침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진실로 임마누엘의 하나님만을 유일한 행복으로 여기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도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부르심을 들으십시오. ●

\* 위 글은 8월에 있었던 “중국어사역자 워크숍” 때의 개회예배 말씀으로 증문으로 된 것을 번역한 것임.

# 한중수교

## 그 이후의 중국선교를 진단한다

우리의 예상을 훨씬 앞질러 다가온 한중수교  
그러기에 놀라움의 증폭이 유달리 컸던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한중수교가 앞으로 東北亞의 정치·군사·경제적 정세에 미칠  
그 엄청난 파급 효과가 현실로 다가오게 된 데 대한  
놀라움이라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그러나 신앙적인 안목에서 보자면  
이 일은 분명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이 일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변혁 속에서  
그 핵심을 결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한중수교가 앞으로 중국선교에서 갖는  
실제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가늠해 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 선교방향을 잡아나가는 일이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위한 시급한 과제가 된다는 말이다.  
본지는 이에 한중수교가 정치·종교·역사의  
각 방면에서 갖는 의미와  
그 변화의 전망을 실어 중국선교를 희망하는  
교회와 성도들께 작은 보탬을 드리고자 특집으로 엮어 보았다.



-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 / 김중윤 교수
- 正道를 걷자 / 유관지목사
- 한중수교와 중국선교에 있어서의 「利」·「禮」·「理」 / 유운정교수
- 한중수교와 학술문화교류전망 / 이영구교수
- 한중수교와 중국선교 / 이요한총무

## 한중수교의 역사적 의미

김중은 (전주대 사학과 교수)

우리 나라 북방외교 정책의 오랜 숙원이었던 중국대륙과의 국교가 마침내 열렸다. 동시에 그동안 우리와 깊은 우정을 나누어 왔던 대만이라는 친구를 잃었다. 새 친구를 얻기 위한 명목 때문에 옛 친구와의 최소한의 신의가 무시된 점은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늦게라도 대만과의 관계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안타까움 속에서도 한중수교는 어쨌든 우리에게 많은 기대와 설레임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서로 접하고 있는 가장 가까운 나라일 뿐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굳이 설명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의 깊은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중수교는 지극히 당연한 역사의 순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훗날 우리 후세들은 중국이 현대사의 우여곡절 때문에 40여 년 간 서로 쳐다만 보면서 가장 가기 어려운 국가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을 어쩌면 괴이한 현상으로 여길 것이다. 따라서 이번 한중수교는 아같은 괴이한 관계의 지속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며 면면히 이어져온 역사의 대흐름에 다시 합류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같이 역사의 흐름 속에 재합류한다는 입장에서 새롭게 열린 한중 양국의 관계는 오랜 역사의 회고와 그 반성을 통해서 앞으로의 관계를 전망하고 새로운 관계 설정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역사 속의 한중관계는 아무래도 대국과 소국의 관계라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 같다. 동아시아가 하나의 세계권으로서 독립되었던 근대이전의 역사는 더욱 그러하다. 아무래도 중국 중심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시대에 우리 선조들은 그 현실을 과감히 수용하고 발달된 중국문화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우리의 문화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민족이 강대한 중국에 접하고 있으면서도 5천년 씩이나 중국의 역사나 문화에 흡수되지 않은 채 중국문화를 독자적으로 수용하고 지켜왔다. 이에 비해 역대 중국주변의 국가들은 대체로 중국 문

화 속에 흡수되어 버려 오늘날 그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심지어 중국을 지배했던 민족들조차 오늘날 중국문화 속에 동화되어 버려 그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현실은 강력한 중국의 문화 동화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사는 주체적 문화 역량이 없는 민족은 역사 속에서 생존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우리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우리의 독자성을 지켜온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탁월한 주체적 문화 수용능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양국관계 역시 우리의 이러한 강한 주체성에 기초하여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교류를 이루어나야 할 것이다.

중국은 과거부터 地大物博의 국가라는 별명답게 광대한 영토와 풍부한 물산을 바탕으로 완전한 자급자족적 체제를 이루어 왔다. 동시에 황하와 양자강 유역의 광범한 충적토의 형성과 농경에 적합한 기후조건 등의 자연환경은 이 지역에 황하문명과 같은 위대한 독자적 문명권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이같은 독립적 역사발전에 힘입어 강력한 자기 중심적문화를 가꿀 수 있었다. 이러한 자족적 체제의 환경 가운데 오랜 역사를 거치면서 중국인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에 대한 강렬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이러한 자신감은 문화우월감으로 표출된다. '中國'이나 '華夏'라는 오랜 그들의 호칭은 바로 이러한 그들의 타민족에 대한 우월의식을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자기 중심적 우월의식은 중국인들에게 타민족에 대한 무시와 함께 깊은 배타의식을 갖게 하였다. 결과 그들은 외국과의 동등한 교류를 등한시하게 되고 불평등한 국제관념을 갖게 되었으며, 대외관계는 자연 폐쇄적일 수밖에 없었고 오만하고 방자하기까지 되어 버렸다. 따라서 과거의 한중관계 역시 사대니 조공이니 하는 불평등한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중국중심적 세계관은 근대에 이르러 세계 자본주의 체제의 등장에 따라 영국과의 아편 전쟁을 거치면서 여지없이 커다란 상처를 입었

다. 심지어는 일본에게까지 전쟁에서 패배하였다. 중국은 더이상 세계의 중심국가가 아님이 드러났고 그들의 오랜 불평등한 국제관념은 더이상 통용될 수가 없었으며 오랜 자족적 체제도 그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그들은 더이상 오만하고 폐쇄적으로만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는 외부와의 긴밀한 관계와 적극적인 교류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낙후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존립하기 위해 이념의 명분을 약화시키면서까지 국가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그들의 활발한 대외교류도 그들의 이익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고, 이번의 한중수교 역시 양국의 상호이해 관계에 이루어진 것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근래에 이르러 미소양국에 의해 양분되던 세계권의 이데올로기도 사실상 국가간의 이해에 의해 약화되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인 대신 이웃끼리 블록(Block)화 되어가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유럽통합의 논의라든지 범미주 국가연합의 구성 등등 대륙간의 블록형성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당연히 아시아 역시 예외는 아니다. 앞으로 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은 점차 약화되는 대신 일본이나 중국의 역할이 중대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과거 미국 등 서양에 대한 외교만을 중시하던 경향에서 근래에 이르러 그들의 외교가 아시아에 큰 비중을 두기 시작했다. 일본 수상의 잦은 한국과 중국방문을 바로 이러한 증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의 이러한 경향은 장차 강화될 아시아 블록을 주도하려는 그들 의지의 표시임을 알 수 있다. 한중수교도 아시아 블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양국이 서로 관계를 맺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중수교는 아시아 대륙의 주도권이 일본 독차지로 되도록 방지하지 않겠다는 중국측의 의지표명이며 중국도 한국을 파트너로 하여 아시아 블록을 주도하겠다는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한중수교가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의 통일을 위한 북방외교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으며, 중국측의 입장에서는 한국을 파트너로 하여 향후 아시아 블록을 주도하겠다는 뜻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양국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같이 한중수교에 대한 양국의

입장이 다소 틀린다 할지라도, 아시아 블록의 형성은 엄밀히 말하자면 결국 과거 역사의 대흐름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과거 동북 아시아가 단지 중국 한 나라에 의해 주도되었다면 이제는 일본과 중국 등에 의해 주도될 것이며 한국은 이 양측의 중간 위치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중간자의 위치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자리이다. 우리는 과거에도 이들 중간에 위치한 관계로 이들의 역학관계에 따라 중국의 침략과 일본의 침략을 받아 깊은 상처를 입기도 했던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주체적 접근을 통해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고 오히려 과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중수교는 이제껏 막혔던 붓물이 터진 것처럼 가장 근접한 이웃인 관계로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제부터이다. 이제는 그곳에 마구 들어가기 전에 그들의 역사와 문화전통에 대한 깊은 이해와 연구를 진행하여야 한다. 만약 이에 대한 깊은 이해 없는 무리한 경제교류나 투자는 자칫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 오랜 역사와 전통 속에서 온갖 우여곡절의 경험을 축적해온 중국인들은 결코 우리가 만만하게 여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중국인의 모습만 보고 중국인을 이해한다고 생각한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따라서 양국은 우선 서로 잘 이해하는 면에 치중하면서 점차 긴밀한 교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양국이 아시아대륙의 평화와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한중수교의 현대적 의미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중국에는 과거 우리의 불행했던 역사를 의미하는 수많은 교포들이 살고 있다. 이들에게 우리의 발전된 조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중수교는 우리와 중국과의 국가간 수교를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조국을 지척에 두고서도 오지 못했던 우리 교포와의 재회의 의미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그들에게 있어서 한중수교는 우리나 중국인보다 더 뜻깊은 감회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교류대상에는 중국인 못지않게 이들 교포들도 중요한 대상임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아무튼 한중수교에 거는 기대가 크다. ●

# 正道를 걷자

## 한중수교 이후 중국선교를 위한 제언

유관지(극동방송 편집국장)

한중수교를 통해 중국선교의 대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 한중수교는 중국선교에 긍정적인 요인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안고 있다는 사실은 중국어문선교회의 동역기관인 중국복음선교회의 제7회 중국선교세미나(1992.9.26 旅韓中華漢城教會)에 여러 경우를 들어 강조한 일이 있다. 그 강연 자료에 들지 아니한 몇 가지 질문을 이 지면에 게재하여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1) 선교에 대해 우리보다 더 깊은 연륜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미국을 비롯하여 기독교가 흥성한 여러 나라가 이미 여러 해 전에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그 수교가 중국선교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가?

(2) 홍콩에서 중국선교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은 오래 전부터 신변문제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만 했다. 그리고 홍콩의 중국귀속(1997)으로 홍콩에서의 對 중국선교활동은 '사실상' 포기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중국선교활동을 자제해 달라는 경고성 공문이 각 교단 본부로 날아들어 중국선교활동에 어떤 의미로든지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은 북경에 공관(무역대표부)이 설치된 이후 일이었다. 이 일이 암시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제 한중수교 이후의 중국선교 방향에 대해 다음 세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 1. 문제점들이 과감히 시정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의 중국선교 활동은 그 동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어 왔다. "복음을 받는 대상을 위한 선교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하는 쪽을 위한 선교인가?" 하는 질문이 끊임없이 제기되었

고 협력부족이라든가 대상지역에 대한 이해 부족이 늘 강하게 거론되었다. 이제 이같은 문제점들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중국선교가 많은 문제를 안게 된 큰 이유가운데 하나가 중국선교가 '닫힌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수선교'였기 때문이었다. 그같은 선교였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정보는 특수한 것에 속했고 중국에 대한 채널을 갖는 것은 특권에 속했다. 그러니까 이를 공유하지 않으려는 것은 이기심을 본능으로 하는 인간의 심성상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닫힌 지역이었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된 보고나 허위 보고도 통할 수 있었다.

우리와 국교를 맺은 중국은 이제 '닫힌 지역'이 아니다. ('특정국가'라는 제약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舊態를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중국선교 문제점들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 2. 중국의 변해 가는 현실에 적응해야 한다.

중국은 변하고 있다. 가치관이 변하고 있고 생활태도가 변하고 있다. 도시화 현상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고 종교는 무식한 사람들이나 믿는 것이라는 인식도 이제는 많이 시정되어 지식인들이 종교에 호감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 청소년 문제가 중국의 심각한 문제로 등장한 것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우리는 이런 변화에 대해 얼마나 지혜롭게 대응하고 있는가?

필자는 중국관계의 일에서 기독교가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좋은 영향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곤 한다. 이는 한 자녀만 갖게 한 여파로 버릇 없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결국 청소년 문제로 이어져서 골치를 앓고 있는 중국의 당국자들에게

“기독교는 청소년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준다. 그러니 18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전도할 수 없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배할 수 없다는 정책을 없애 버려라!”라고 호소하기 위함이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참고가 될까 하여 예시해 둔다.

### 3. 역사 속에서 교훈을 찾아야 한다.

한중수교의 소식이 우리를 기뻐했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은 1800년대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의 상황이었다.

당시 우리 나라는 선교의 자유가 허락되어 있지 않았다. 그래서 알렌(Allen)은 선교사의 신분이 아닌 ‘공사관의 공의’ 신분으로 입국해서 활동했다. 알렌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일을 계속한 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개척선교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종교적 삶’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여기서도 우리는 인간의 세속적 역사를 통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대하게 된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을 통하면서도 인간의 계획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그의 목표를 이루어 갔던 것이다.”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한국기독교연구회 편 「한국기독교의 역사」 p. 182)

당시 우리 나라의 유교적 배타성을 현재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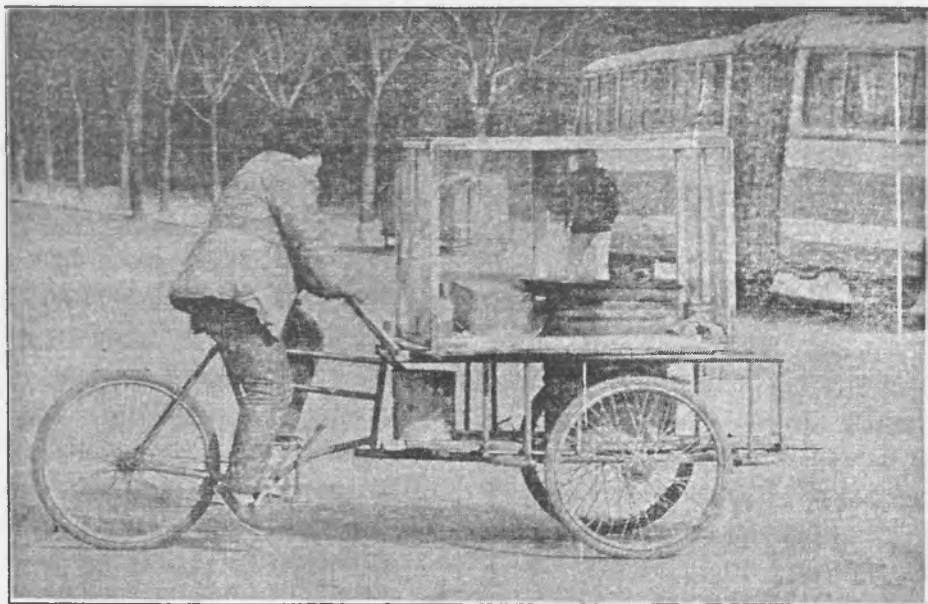
의 사회주의와 대치해서 살펴보면 알렌을 비롯한 초기 선교사들의 선교활동은 오늘날 중국선교에 많은 암시와 희망을 준다. 여하튼 1882년 5월 체결된 한미수호통상조약은 미국의, 한국선교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다.

반면 중국의 공인교회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하는 문제는 군국주의나 기독교를 환영하지 않는 통치세력하에서 교회가 취한 태도, 그리고 이 일이 남긴 휴유증을 분석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해방 후 우리교회는 이 일로 인해 심한 혼란을 겪었으며 지금 러시아의 교회들도 이런 문제들을 안고 있다. (이것은 중국의 공인교회를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참고하라는 뜻이다.)

중국은 물론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선교 초기의 문제점(아편, 오만한 선교자세가 끼친 영향도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중국선교 전략’ 따위의 자극적인 말은 철저히 금기시해 오고 있는 처지이지만 짧고 강렬한 설명이 될까 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줄고를 끝내고자 한다.

한중수교 이후 중국선교는 더이상 유격전이 아니다. 정규전이다. 이제는 정말로 정도를 걸어야 할 때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



# 韓中수교와 中國宣敎에 있어서의 「利」·「禮」·「理」

유운정(총회신학교 교수)

8월 24일, 이날은 世界歷史 가운데 永遠히 記憶되는 날이다. 특히 중국인이면서 韓國에서 半平生을 살아온 筆者는 더욱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날인 것이다. 韓中修敎가 바로 이날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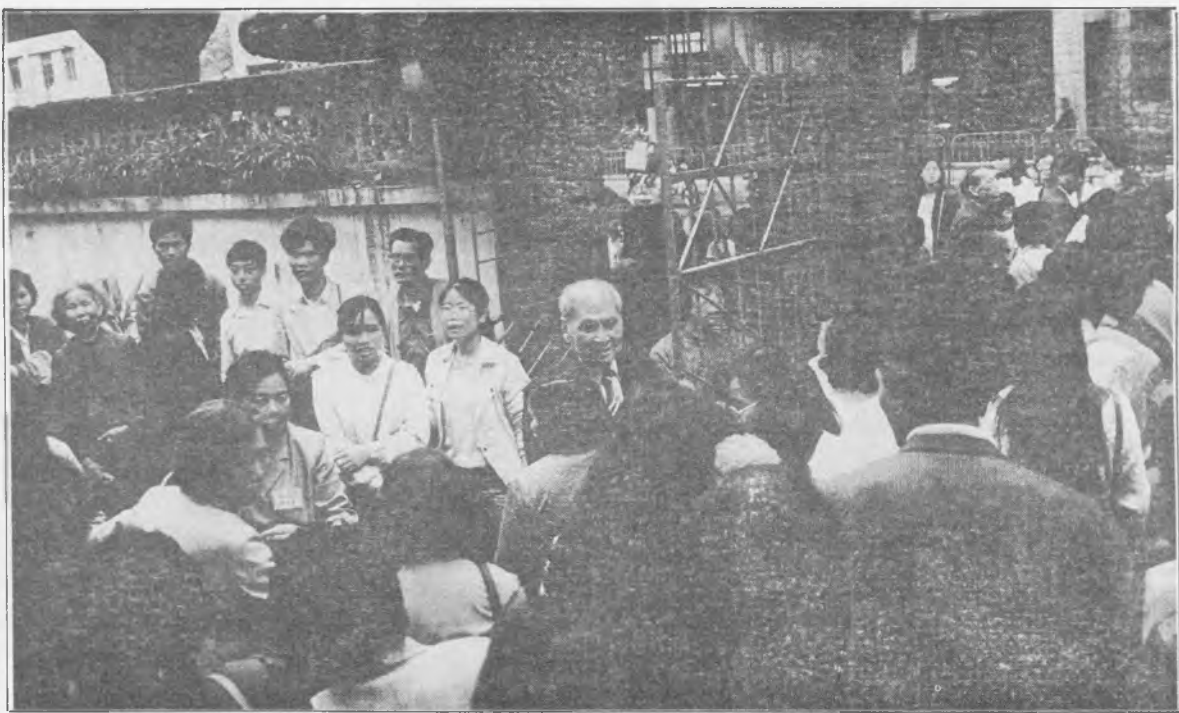
新聞媒體를 통해서 韓國이 中共과 修交할 것이라는 豫知는 있었으나 이것이 막상 하나의 歷史적인 事實으로 눈 앞에 다가왔을 때 相互 修交國이나 斷交國 백성들의 心情은 千態萬象일 것이다. 筆者의 心情도 이러한 사실 앞에서 매우 무거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24일 명동소재 中華民國 대사관에 41년 동안 계양되어 왔던 中華民國 國旗가 降下되는 순간 筆者는 「斷交」의 아픔보다는 中華民國 國旗가 의미하는 깊은 뜻인 「自由」, 「平等」, 「博愛」精神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더 가슴아프게 느꼈던 것이다.

「青天」, 「白日」, 「滿地紅」이 바로 降下된 中華民國 國旗의 모양이다. 「青天」는 光明燦爛한 푸른 하늘로서 中華民國 國民의 崇高한 人格과 意志와 自由를 상징하며, 「白日」은 온누리에 비친 맑은 太陽으로, 潔白과 平等을 상징하고, 「滿地紅」은 義에 鬪爭하는 革命先烈들의 피로 물든 붉은 대지를 상징하여 中華民國의 犧牲奮鬪 博愛精神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 國旗는 1894년 陸皓東에 의해 그려져 革命黨 黨旗로 使用해오다 中華民國 初년에 해군 軍旗로 使用되었고 中華民國 三年(1914)에 中華民國 國旗로 定하게 된 것이다. 不正腐敗를 몰아내고 國民에게 眞正한 自由와 平等을 주기 위해 生命을 걸고 義에 鬪爭하는 革新意志가 너무도 아름다웠던 것이다. 그런데 이 國旗가 自由大韓 땅에서 墜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降下하게 되다니 이것이 「利」와 「禮」와 「理」 그 어느 면에서 보아도 自由와 民主

를 愛好하는 사람들의 心層에서 共感帶 形成이 어려울 것이다. 大韓民國과 中華民國은 옛부터 「友邦之國」이라 했다. 兩國은 다 共產黨과 外敵의 侵略과 破壞로 말미암아 엄청난 시련기를 겪어야 했으며 兩國의 國運 또한 비슷했던 것이다. 어려운 時期에 서로 힘을 합하여 共產主義者들의 총칼 앞에서 難局타개를 위해서 싸워왔던 것이 그리 오래 전의 일은 아닌 줄로 안다. 「上海臨時政府」의 設立이 바로 自由大韓과 自由中華의 友邦을 證據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에 와서 政界 인사들은 이 歷史적인 事實에 대해 쉽게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말 큰 政치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利」를 위해 自由와 友邦까지 버리는 「非禮」, 「非理」적인 政治인가 냉철한 批判을 받아야 할 것이다.

東歐와 蘇聯 共產黨의 붕괴는 우리들에게 좋은 敎訓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中共과의 時限附 「利」 앞에 옛 친구를 버리고 「利」에 살고 「禮」가 죽는 격이 되었으니 그 대가는 반드시 되돌아 온다는 眞「理」를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新聞媒體를 통해서 在韓華僑二萬名 중 약 61%가 中共을 指向할 것이라는 보도를 보게 된다. 그러나 華僑들에게 選擇의 自由는 있지만 절대로 中共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 分明하다. 물론 少數적인 變動은 면할 수 없는 것이지만 大部分 華僑들은 現在의 中華民國 身分을 그대로 간직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다. 「自由」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中國대사관은 내놓았지만 華僑로서 절대로 내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그것은 대사관 옆에 붙어있는 漢城華僑 小學敎이다. 自由와 民主主義를 가르친 배움의 터전이 결코 共產主義 理念敎育을 받는 장소로 전락해서는 안될 것이나 政府에서는 政治와 敎育의 分明한 선을

개중 一部 종교인사들은  
韓中수교가 이루어지면 中國宣敎의 문이  
넓어질 것이라는 判斷을 성급히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오판임을 宣敎사명자들만  
이라도 알아야 할 것이다.



그어 韓中수교 이후 中華民國 國民敎育을 위해  
원만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韓中수교를 信仰人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개중 一部 종교인사들은 韓中수  
교가 이루어지면 中國宣敎의 문이 넓어질 것이라  
는 判斷을 성급히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오판임을 宣敎사명자들만이라도 알아야 할 것이  
다. 한중수교가 선교활동에 대해 그 어떤 變化도  
가져올 수 없을 것임을 강조하고 싶다. 「宣敎自  
由」, 이것은 中央 땅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  
을 알고, '얻지 못한 때'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을 다해 言語訓練, 人

格訓練, 信仰訓練을 통해 準備하시기 바란다. 하  
나님은 準備된 자를 쓰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보다 더 先  
行되어야 할 일인 것이다. 지금까지의 中國宣敎  
方法과 戰略은 中國現地人들에게 있어서 도움되  
는 것이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도리어  
부작용을 일으켜 中國宣敎의 장애가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바라옵기는 中國宣敎의 「主權」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宣敎使命者들이 되어 피  
선교국의 「利」가 되며 동역자간에 「禮」로 相通하  
며 하나님의 眞理에 부합하는 宣敎가 될 수 있  
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 한중수교와 학술문화교류 전망

이영구(외국어대 중문과 교수)

일반적으로 교류는  
언제나 짝이 있어야 하며 나라와  
나라사이의 문화교류는 일정한 자연조건과  
사회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지리적 원근, 교통상황,  
사회구성원의 생활방식 등은 모두 양국교국의 문화교류 작용에  
있어 축진을 혹은 장애를 일으킨다. 옛부터 중국의  
주변국가 가운데 문화의 중심지인 중원지역과  
가장 가까웠던 나라로 우리나라를  
꼽을 수 있다.

소위 '물이 넘치면 도랑이 깊어진다'는 원론적 의미를 되풀이 하면서 정치관계정립에 신중한 자세를 취해온 중국이 마침내 지난 8월 24일 우리나라와 관계정상화를 위해 국교를 수립하였다.

여기에서는 먼저 간단히 그간 두 나라의 입장을 정리한 후 이어 한중문화 교류에 있어 지리적 문화적 관계를 연원적으로 고찰하고 끝으로 양국의 학술문화교류전망을 살펴본다.

먼저 양국의 입장을 보면 중국측이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 자세로 나왔던 이유는 두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거시적인 측면은 제14차 당대회에서 개혁파의 입지를 강화하고 동소평의 남순강화 이후 경제적 합리주의가 정책결정의 전면에 등장한 분위기 및 동북아에서의 유일한 핵보유국의 지위를 누리기 위한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경계를 들 수 있다. 직접적 이유는 대만의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활발한 외교활동과 대만 독립운동과 같은 분리주의 움직임 및 전투기 구입과 같은 군비증강에 대한 고리를 일시에 차단할 수 있는 이른바

한국카드의 대두였다. 대만과 약 50년 간 맹방관계를 유지해온 한국과의 관계정상화는 금년 하반기 입법의원선거를 예정하고 있는 국민당 정부에 적지않은 부담을 줄 것이다.

이러한 중국측의 의도와 우리정부의 가시적인 외교활동이 결합되었다. 그것은 6공화국에 들어와 한소수교와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고위급 회담의 실현 등 일련의 적극적 북방외교 정책의 성과는 동북아에서의 유일한 미수교국이었던 중국과의 수교를 마무리 하면서 북방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권적 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한중수교는 앞으로 동북아 질서의 안정과 평화, 남북관계개선 등 정치·경제·문화 각 방면에서의 역할에 기대가 자못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어 양국 문화의 연원적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고대문화는 漢文文化圈에 속하면서 두 나라는 상호 장기적 왕래와 문화교류 속에서 적어도 1세기 전 청일전쟁 이후 서양문화가 밀려들기 시작하기 전까지 공존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류는 언제나 짝이 있어야 하며

나라와 나라사이의 문화교류는 일정한 자연조건과 사회조건의 제약을 받는다. 지리적 원근, 교통상황, 사회구성원의 생활방식 등은 모두가 양국의 문화교류작용에 있어 촉진을 혹은 장애를 일으킨다. 옛부터 중국의 주변국가 가운데 문화의 중심인 중원지역과 가장 가까웠던 나라로 우리 나라를 꼽을 수 있다. 그 주요한 원인을 살펴보면 우리 나라와 중원지역의 육로에는 사막, 산맥 등 장애물이 없고 여정이 비교적 순탄한 편이고 게다가 멀지 않은 해상 교통로가 있었기 때문이다.

신라사람들을 당나라와 해상교류를 함에 있어 황해도의 서쪽인 인천이나 대동강에서 산동성으로 상륙했으며 또는 전라도의 영암에서 흑산도를 지나 상해로 들어갔다. 명청시기에 이조사신들의 북경왕래는 왕왕 인천에서 연대 혹은 천진으로 가거나 요동반도 동남해안을 따라 발해를 건너갔다. 육로로는 압록강을 건너 요동, 요서, 산해관을 거쳐 북경으로 들어갔다. 평양근처의 남포항에서 요동반도의 대련까지의 거리는 200해리이고 서울 인천항에서 산동반도의 연대까지는 대략 200해리로 모두 먼 거리라 할 수 없다. 이와같은 단거리는 양국의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매우 편리한 지리적 교통조건이라 할 수 있다. 또다른 원인은 옛부터 우리 나라는 농업국가로서 생산과 생활방식이 중국과 비슷하여 중국문화를 도입하고 수용하기에 거부감이 없어 문화교류가 용이 했다고 볼 수 있다.

신라가 당의 관제와 복제를 들여오고 고려 광종 때 과거제도를 도입하고 유교가 통치이념으로 자리를 굳혀온 것이 대표적 예다. 조선조 사대부들이 스스로 小華라 자부하여 주자학에 몰두했고 후기에 와서 실학자들의 서양문물에 대한 소개도 북경의 琉璃廠거리를 창구로 했던 것은 중국과 우리 나라의 문화적 공감대가 얼마나 컸던지를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처럼 우리 나라는 중원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중국문화교류의 우월한 지리와 사회적 조건을 구비했었다. 그러나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기 시작한 반세기 동안 중국은 우리에게 금기의 땅이 됐고 13억 중국인과 그들이 이룩한 중국문화는 금단의 문화로 단절되어 왔다. 다행히 중국에서 4인방이 몰락한 후 점진적으로 개방과 개혁의 물결이 일기 시작한 이래 80년대초부터 초보적인 교류가 다시 시작되었다. 우리 나라의 테니스팀이 공식적으로 중국의 초청을 받아 운남성 곤명시에 가서 테니스대회에 참가했는데 이는 공산화된 이후 양국 국민이 처음으로 스포츠를 통해 접촉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것을 시발로 하여 86년 7월 북경에서 열린 세계에스페란토 대회에 순수한 학술활동을 위해 현직 국회의원, 대학총장, 교수 등이 초청을 받을 수 있었고 향후 크고 작은 국제학술회의에 서로의 왕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86아시아 게임과 88올림픽 때에 중국이 선수단을 대거 파견함으로써 명실공히 양국의 문화교류를 대내외로 천명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그간 단절된 중국문화를 복원해 줄 수 있는 많은 저서물들이 국내에 소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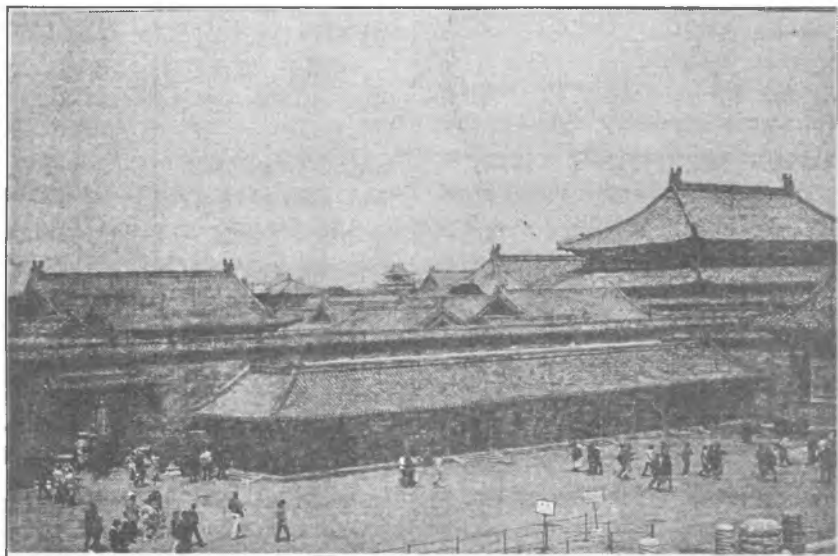
89년 중앙일보사에서 중국현대문학전집 20권을 기획출간했고 이뿐만 아니라 당대문학도 쉬지 않고 각 출판사를 통해서 출간되어 유명작가의 대표작품들을 접할 수 있게 되어 오늘날 중국문화를 유지하도록 일조했다.

총괄적으로 말한다면 한중수교는 1세기 동안의 상호 문화적 단절을 다시 이어줄 수 있다는 데에서 커다란 의미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수교와 동시에 북경대학의 楊賀松 교수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외국인 교환교수로 정식 초빙받아와 현재 중국어를 학생들에게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장차 학술영역뿐만 아니라 영화, 음악, 예술, 무용 등 문화전반에 걸쳐 폭넓은 상호교류가 활발히 기대된다고 할 수 있다. ●

## 한중수교와 중국선교

이요한(중국어문선교회 총무)



지난 8월 24일 마침내 한중간에 정식국교가 수립되었다. 오래전부터 예견된 일이었지만 막상 한중수교 사실이 전해지자 매스컴을 비롯, 나라 전체가 온통 중국열기로 달아올랐다.

교계의 경우에도 이번 양국간 국교수립이 중국선교에 일대전기를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중국선교에 박차를 가할 태세다. 지난해 한소수교 이후 구소련선교 바람이 불었듯이 바야흐로 중국선교의 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몇 년 간 중국선교 열기가 식어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일단 고무적인 현상으로 받아 들여진다.

그러나 한중수교 이후의 중국선교에 대해 과잉 기대는 금물이다.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우리와 국교를 맺던 러시아 선교의 경우가 우리에게 밀해 주듯이 수교자체가 성공적 선교를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중수교의 신시대를 맞는 한국교회

는 이제 막연한 기대에서 벗어나서 이번 한중수교가 중국선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의 획을 긋는 모든 사건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마련이다. 거기에는 한중수교의 경우도 예외일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일반 영역뿐 아니라 선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한중수교는 몇 가지 점에서 중국선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

첫째, 그 동안 중국이 미수교 적성국가로 분류됨에 따라 많은 제약을 받아 왔던 중국방문 절차가 이번 수교로 말미암아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제까지 중국선교 사역자들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일단 교인들의 회사에 직함을 걸고 최소한 3개월의 갑근세 납부실적을 채워야 하

는 등 그 절차가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었다. 그러던 것이 한중수교와 함께 3개월 이내의 중국 여행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도 가능하도록 조만간 중국방문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다. 이것은 당장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이면서도 무시할 수 없는 선교 장애요인 제거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수교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북경을 위시한 중국 주요도시로 정기 직항로가 개설됨에 따라 목회자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단기 선교 여행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 모두는 결국 중국을 이해하는 데에, 나아가서는 중국교회의 실재를 보다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해 줄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그리고 이것은 또한 그 동안 연변 조선족지역에 편중된 한국교회 중국선교의 한계성을 뛰어넘어 명실공히 중국선교로 발돋움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이번 한중수교로 종교, 교육분야 등에서 양국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간접선교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 종교계 인사들의 교류활성화는 뒤에서 언급하겠지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교육분야의 교류 활성화, 곧 양국 유학생교류 활성화는 중국선교의 폭을 넓혀 줄 것이 분명하다. 현재 중국은 적극적인 유학정책을 펴고 있다. 이른바 '4개 현대화'(농업, 공업, 국방 및 과학기술)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정책은 선교전략적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미국 일본 호주에 각각 5,6만 명씩의 중국 유학생들이 선진 문물을 배우고 있고, 심지어 필리핀에도 수천 명의 중국유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머지 않아 한국에도 많은 중국 유학생들이 몰려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들은 인재들이기 때문에 만약 그들이 예수를 영접할 경우 그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유학생 사역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인 사역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신차원에 그치지 않고 제자훈련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젊은 지도자들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교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유학생교류 측면에서 또 한 가지 기대되는 것은

한국학생들의 중국유학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중의학(한의학), 중국문학, 중국역사, 중국정치, 문화인류학, 비교언어학, 동양화 등 중국 관련학과의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많은 한국학생들을 받아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될 경우 중국유학은 미래 중국선교사들의 중국어 습득은 물론 중국문화 적응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선교훈련의 장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가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언어장벽을 어는 정도 극복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중국유학 그 자체가 캠퍼스 사역의 장이 될 수 있어서 중국선교의 교두보 역할까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한중수교의 또 한 가지 긍정적인 영향은 양국간 경험확대 추세에 따라 상사 주재원 선교와 전문인 선교의 기회가 그만큼 많아질 것이라는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한중수교는 양국간에 존재하던 경제외적 장애를 제거해 줌으로써 무역, 투자, 기술이전, 건설 등 여러 방면에 걸쳐 양국간 경제 협력 관계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올해 이미 양국교역규모가 100만 불을 넘어 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대기업들이 앞다투어 중국 지사를 늘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체의 대중국 투자 역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기독교인들이 상사주재원으로, 기술자로, 혹은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선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평신도 선교' 또는 '전문인 선교'로 불리는 이러한 사역들은 행동의 제약 활동범위의 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나 중국과 같은 창의적 접근지역의 경우 유리한 점이 많다. 우선 그것은 입국이 용이하고 장기간에 걸쳐 합법적으로 거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전파의 기반 조성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은 직업과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선교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역이 지혜롭게 그리고 신중하게 추진된다면 직접선교보다 더 큰 열매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교회의 미래 지도자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더 없이

좋은 선교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기존 구미교회의 중국선교 결과를 통해서 입증할 수 있는 사실이기도 하다.

이상에서 우리는 한중수교 결과 예상되는 긍정적 영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그러나 매사가 그러하듯 한중수교의 경우도 여러 가지 부정적 영향들이 예상된다. 만약 우리가 그러한 선교적 역기능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거기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다면 예상 밖의 부작용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중국정부의 종교정책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앞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한중수교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도 역시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정부의 종교 정책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봄으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한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공산당을 종교를 아편으로 보고 궁극적으로 종교를 박멸하는 데 그들의 종교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다만 현재 이른바 '삼자교회'를 앞세워 기독교를 어느 정도 공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4개 현대화'라는 국가적 당면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통일전선적 조치일 뿐이다. 따라서 그것은 일시적이고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정부의 이러한 반기독교적 종교정책은 지난 90년 11월 19일자 중국공산당 기관지 '선전'지에 게재된 "해외 종교세력의 침투를 경계하자"는 글에 잘 나타났다. 이 문서는 시종일관 외국교회의 선교활동을 정치목적을 띤 화평연변(和平演變) 즉 평화적 체제 전복행위로 보고 종교 침투의 주요경로를 다루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개신교 선교활동을 겨냥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중국이 공산당 일당 독재체제에서 다원주의 정치체제로 이행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선교적 자유'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중국정부의 반기독교적 종교정책을 염두로 두고 한중수교 결과 초래될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무엇보다도 한중교회간의 편파적 종교교류가 예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과 중국간에 국교가 수립됨에 따라 양국간에 문화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거기에는 기독교를 포

함한 종교계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정부가 가정교회를 불법시하는 상황에서 중국측 교류대상이 삼자(삼자기독교애국협회)와 기협(중국기독교협회)등 관변교회로 국한될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이른바 '삼자교회'내에도 상당수의 복음적인 교역자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삼자교회와도 교제의 악수를 나누어야 한다. 그러나 가정교회를 배제하고 '삼자'나 '기협'만을 상대로 교류할 경우 한국교회가 본의 아니게 정통성에서나 교세에서 앞서있는 가정교회의 존재를 무시하는 꼴이 되어 결과적으로 '중국교회의 하나됨'에 누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우려와 관련하여 지난 8월초에 있었던 중국기독교협회 인사들의 방한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지난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대표단의 중국방문에 대한 답례형식으로 이루어진 '기협'의 이번 한국방문에는 동 협회의 한우언자오(韓文藻) 부회장 등 중량급 인사들이 다수 참여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서 KNCC와 '기협' 양측은 목회자와 신도의 상호방문, 연례평가회의 개최, 중국내 지하교회 부재(不在) 등에 합의했던 것이다. 그 중 지하교회유무와 관련된 합의내용은 지난해 KNCC대표단의 중국방문시에도 있었던 발언으로서 정치색 짙은 억지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1988년 4월 '기협'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빌리 그레함 목사가 중국정부와 기협의 반대로 불구하고 중국가정교회의 대표적 지도자인 광쩌우 따마촨교회의 린시옌까오(林獻羔) 목사를 방문함으로써 균형을 유지하고자 한 것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이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중국공산당의 반기독교적 종교정책과 중국교회의 특수한 사정을 잘 이해하여 '삼자'나 '기협'과의 공식적 교류 외에 또 다른 교류대상인 가정교회와의 비공식적 교류에도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한중수교의 부정적 영향으로 한국교회의 선교활동에 대한 한중 양국정부의 간섭이 더욱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것은 수교란 상대국 주권에 대한 존중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번 수교와 함께 발표된 '한중수교 공동

성명서 제2항에서도 이 점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정부는 국교가 수립되지도 않은 지난해 이미 한국교회가 무분별한 선교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면서 교인들의 선교목적의 중국방문을 자제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 있었다. 이것은 그래도 항의성 협조요청공문에 불과하지만 중국 정치 상황과 사안에 따라서 중국정부당국이 한국교회의 선교사역에 직접 제재를 가할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

한편 중국정부 못지 않게 우리 정부로부터도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 비근한 예로 지난 6월 30일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의 북방선교관련 보고서를 들 수 있다. 러시아 주재 한국 대사관은 이 보고서에서 일부 선교사들의 금품살포, 신자뺏기, 교회난립 등의 과열선교로 현지인의 심각한 반발을 사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올바른 북방선교대책 마련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서 정부는 각 교단에 '러시아 및 중앙아시아 선교활동에 따른 협조공문'을 띄우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과열선교로 장차 한·중간에 선교문제가 발생할 때 우리정부쪽에서 먼저 제재 조치를 취할 공산도 크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회는 한·중 양국정부의 이러한 과민반응들을 예상하며 지혜로운 자세로 중국선교에 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중수교의 부정적 영향으로 정보노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우리는 한중수교 이후에 중국과 중국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긍정적인 면에서 살펴본 바 있다. 수교란 결국 상호주의에 입각한 것인 만큼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중국의 한국교회 정보수집 역시 쉬워질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한 중국대사관내에 정보수집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나 요원들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자국민 보호'라고 하는 대사관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정보수집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한국에는 지금 2만 명이 넘는 조선족동포들이 체류하고 있고, 또 앞으로는 상당수의 중국 유학생들이 한국에 올 것으로 전망된다. 바로 이들에게 중국 대사관의 보호감독이 따를 것이고, 그럴 경우 중국교포 선교사역이나 장차 중국유학생 선교사역이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그 중에서도 중국유학생들에게 선교할 때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6.4천안문사태의 배후세력인 해외중국유학생과 동구몰락의 결정적 원인인 기독교와의 만남을 중국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며 유학생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신화통신사와 인민일보 등 중국관영 언론사의 서울지사 설립도 정보유출을 가속화시킬 터인데 이 문제에 대한 한국교회의 적절한 대처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현재의 과시적 선교풍토가 계속되는 한 한중수교로 인한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까지 한중수교가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에 미칠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것으로 본주제가 충분히 다루어졌다고는 볼 수 없으나 최소한 이번 한중수교로 말미암아 중국선교의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것과 그 기회의 확대가 성공적인 사역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무언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리라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제 중국과 국교를 맺었으니 본격적인 선교가 가능할 것이라는 식의 과잉기대를 갖고 중국선교에 임할 경우, 선교를 일종의 체제전복기도 행위로 간주하는 중국정부에 의해 자칫 '주권 침해'로 받아들여져서 향후 중국선교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막연한 기대보다 구체적인 준비가, 구호보다는 내실이, 흥분보다는 인내가 요구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요컨대 지금이야말로 말로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마병을 준비할 때라고 믿는다. ●

# 두 노인

전인영(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첫번째 노인의 이야기는 「새옹지마(塞翁失馬)」 또는 「새옹지마(塞翁之馬)」라는 중국의 故事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의미의 공감대를 마련해 주고 있다. 즉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어렵거나 곤란한 일을 당한 경우에 곧잘 “인간만사 새옹지마”라 하며 위로나 격려의 말로 삼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새옹과 말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지 여기에 그 대략적인 내용을 먼저 알아보기로 한다.

이 이야기는 먼저, 새옹은 객관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 그리하여 그는 세상에는 절대적인 행복이나 불행은 없다고 믿고 있는 이른바 달관된 인생관을 가진 분이였음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행운을 맞이하였어도 기뻐하거나 즐거운 표정을 나타내지 않았고, 불행한 일을 당해도 고민하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일은 그저 순리대로 되어진다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날, 새옹의 집에서 아끼던 말 한 마리가 없어졌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모두 와서 그를 위로하였다. 그러나 새옹은 오히려, “고맙다. 그러나 나는 이일로 괴로워하거나 기분나빠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을 찾으려고도 않겠다. 말을 잃어버렸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정말 말을 잃어버린 후 며칠이 지나서 그 잃어버렸던 말이 다시 돌아왔다. 뿐만 아니라 놀라움게도 매우 보기드문 名馬 한 마리와 같이 돌

아온 것이다. 이러한 일에 새옹의 여러 친구들이 축하하여 주었다. 그러나 새옹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말을 얻었다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만은 아닐 것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새옹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 새 명마를 매우 좋아하여 늘 그 말을 타고 달리기를 즐기었다. 그 말은 아주 빨리 달리었고 영리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새옹의 아들은 그 말을 타고 달리다 떨어져 다리가 부러지는 큰 부상을 입었다. 이 소식을 들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또다시 찾아와 새옹을 위로하였다. 그러나 새옹은 태연자약하게 “내 아들의 사고가 그렇게 불행한 일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화가 될지 복이 될지는 두고 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당시 국가에는 이웃나라들이 침범이 빈번해 전쟁이 계속되었다. 전쟁이 확대되자 국가는 전국의 모든 청년들을 전쟁에 동원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장기화되어 전쟁에 참여했던 대부분의 청년들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새옹의 아들은 다리의 부상으로 참전할 수 없었기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새옹과 함께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다.

이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계속되는 사건마다 새옹이 취한 달관된 표현과 그 뒤에 일어나는 결과적 사건에서 이 이야기를 접하는 사람들로부터 공감을 갖게 하는 긍정적인 사고요소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새옹과 말 그리고 새옹의 아들에 얽힌 이 이야기는 실상 많은 경우의 결과를 예상할

수 있게 한다. 예를 들면 잃어버린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말이 돌아오지 않았을 경우 새옹은 그저 말만 잃어버렸을 뿐 아들이 부상을 입는 사고는 당하지 않았을 것이나 전쟁에는 참가하게 되어 끝내는 전쟁의 희생물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 이 이야기는 정말 김이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실적인 경우들을 예상하면서도 우리는 새옹이 취한 여유있고 긍정적인 사고에 동감을 하고, 새옹에게 같은 인간으로서의 동경과 아울러 부러운 감정마저도 자아내게 된다. 인간으로서 소중하며 쉽게 지나칠 수 없는 물질적 소유의 문제, 애간장을 녹이는 자식의 사고 등에 대해 그렇게도 선견지명적인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음은 마땅히 귀감이 될 만한 일이다.

새옹은 세상의 모든 일들이 자연의 순리대로 되어져 감이 옳다고 믿는 믿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실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기적이고 물질만능주의에 빠져있는 현세를 비웃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새옹의 이러한 관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가? 중국사상사에서 볼 수 있는 道家的 수양의 경지인가 아니면 儒家的 盡性의 경지인가? 여하간 이 중국의 고사에서 느낄 수 있는 한 동양적인 인간의 긍정적 관념은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그들의 삶에 용기를 더해주고 있음은 분명하다고 하겠다.

두번째 이야기는 현대적 삶에 있어 한 인간의 또하나의 달관된 삶의 경험적인 표현에 관한 것이다. 비록 洋의 東西를 달리하는 내용이나 전편의 새옹의 고사와 관련이 있다고 느꼈다.

즉 최근 어느 신문의 한 칼럼에서 본 미

국의 한 노인(翁)에 관한 이야기이다. 잭 스미스옹은 미국의 3대 신문인 LA타임즈 논설위원으로 금년 75세를 끝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있다. 그의 논설은 20세기 후반기의 세계 현대사를 날카롭게 비평하였고 실로 그의 필봉은 세계사를 움직이는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렇듯 세계적인 칼럼리스트로 명성을 날렸던 스미스옹은 명예로운 은퇴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그의 삶을 술회하고 있다. "만약 하나님의 인도가 없었다면 스스로의 한계에 대해 절망하며 이미 오래 전에 붓을 꺾었을 것이다." 그는 계속하여 매사의 조용한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통이 오늘날의 그란 존재가 있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는 삶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해하는 자기나름의 방법을 터득했고 이 방법을 통하여 그는 그의 삶의 여러 역경을 이겨나갈 수 있었다. 스미스옹은 하나님의 선택과 인도가 인간 됨됨이의 근원이 되며 인간 삶의 과정에 또한 깊은 관련이 있음을 경험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상의 동서양의 두 翁에 대한 이야기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관념의 중요성과 그 관념을 이끌어내는 원동력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우리가 아무리 각박하고 복잡다단한 현대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 속에 담겨진. 나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욱 담대하고 소신있게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을 것이고 계속된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한 교통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과 공간에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는 두 노인(翁)의 이야기이나 그들 삶의 방식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각박한 우리들에게 충분한 자성의 소지가 있는 듯 싶어 생각해 보았다. ●

## 인천 외항선교회를 가다

1호선 전철을 타고 종착역인 인천역에서 내려 차로 5분 정도를 타고 가다보면, 4거리 모퉁이 한쪽으로 2층 야트막한 건물벽면에 수수하게 붙어있는 '외항선교회'란 간판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마침 이날은 정박해 있는 중국배에 오르는 날이라기에 우리는 좀 서둘러 사무실에 도착, 송시영 간사를 비롯한 관계자로부터 외항선교회의 역사와 활동상황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서울의 본부를 빼고 인천 군산, 동해, 여수 등 항만지역에 설립된 지부의 하나인 인천지회는 창립된 지 근 20년이나 되오지만 그 중요성에 비해 그 사역이 비교적 덜 알려져 있다고 했다. 서울 인천지회가 자체발간하는 회보를 통해 그 사역활동을 정기적으로 알리고 관심있는 지역교회의 꾸준한 후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미흡한 실정이라고 고백한다.

한국에 있으면서 전세계의 80여 개국으로부터 오는 사람들, 특히 이슬람권의 나라에서는 꿈도 꾸어볼 수 없는 선교사역을 마음껏 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중요성을 알 수 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사역상의 어려움은 없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방문했던 선교회들이나 교회들이 이구동성으로 대답했던 것처럼 돈의 부족이 아니라 사람의 부족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들을 수 있었다. 앞으로 선교지망자를 발굴하고 어학을 훈련시키는 훈련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며 조직적인 사역의 필요성을 느낀다는 말을 곁들였다. 한편 인천에서 이처럼 승선사역을 하는데, 무슨 조직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은 아예 빗나가고 말았다. 어떤 일정한 조직이 있다기 보다는 그때그때마다 이곳저곳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팀을 이루고 선교활동을 해온다는 설명이었다. 그날도 결국 우리 기자일행은 줄지에(?) 중국승선전도팀의 일원이 되어 중국어찬양을 연습하느라 진땀을 빼

고, 송시영 간사를 비롯한 도합 8명이 봉고차로 승선길에 올랐다. 엉겁결에 따라나선 것이기는 하지만 기대 반 호기심 반으로 흥분된 기분이었다. 몇 곳의 검사기관을 거쳐 올라 짹짹한 소금 냄새가 풍기는 배에 “你好!” 라는 인사말을 듣는 순간, “이크, 내가 진짜 중국사람을 만났구나!” 하는 설레임 때문에 발걸음에 균형을 잃지나 않을까 걱정이 앞설 지경이었다. 그래도 생각나는 것은 “你好” 한 마디, 힘차게 응답하니 좀 여유가 생기는 것 같았다. 배는 그다지 크지 않았고 좀 낡은 듯 싶었으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의 따뜻한 환대는 그런 것을 덮고도 남을 만 했다. 마침 한중수교 직후라 그들도 더욱 마음이 열려져 있는 듯 싶었다. 선내의 손님접대실로 안내받은 우리 일행은 콜라 등 음료수와 담배갑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놓여진 긴 탁상이 펍 인상깊게 느껴졌다. 특히 담배갑이 놓여져 있어서 참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언젠가 중국에서 세례를 베풀었더니 참 감사하다고 인삼주 한 병을 정성스럽게 전하더라는 얘기가 떠오르면서, 그들의 순수함과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무지함을 동시에 웅변해 주는 듯 싶었다.

아무튼 선원들이 오기를 기다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니, 하나둘씩 선원들이 모이기 시작. 좁은 실내가 그득해졌다. 마침 비가 오는 날이라 일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해서 많이 모일 수 있었던 것이라는 이야기를 후에 듣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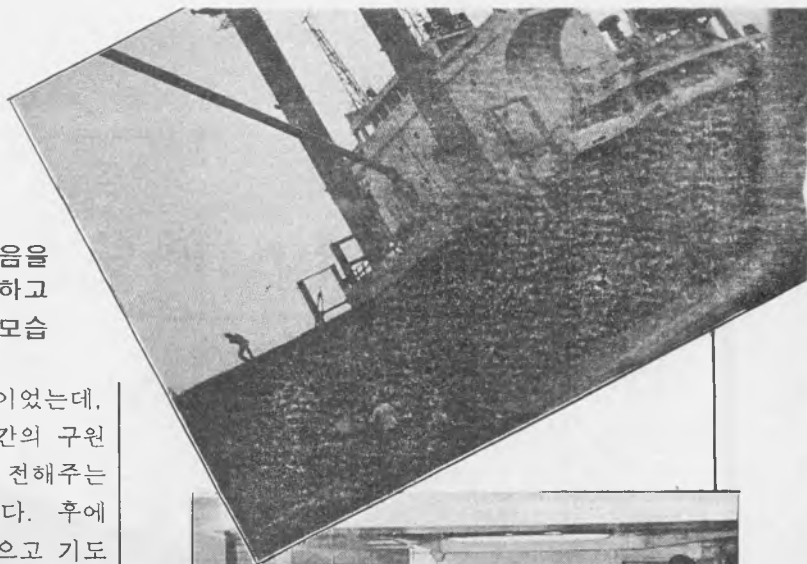
이 외에도 그들은 재미있어 하며 열심히 따라 부르고 특히 간단한 손 동작을 반복하며 하는 복음송에는 흥미를 더욱 느끼는 것 같았다. 될 수 있는 대로 우리팀과 선원들이 하나 걸러 앉아 있게 해서 친근감을 느끼도록 배려했다. 이런 가운데 짧고도 재미있는 간증과, 곧이어 송시영 간사의 재미있는 설교가 통역자의 통역으로 이어졌다. 이 지루하고 답답한 선상생활에서 잠시나마 웃으

중국승무원들에게 선상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며 들을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 말씀이었는데, 간단한 묘기를 곁들여서 죄와 인간, 인간의 구원과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특징적으로 전해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짙막한 기도가 있었다. 후에 사진을 통해 그들이 진지하게 두 손 모으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가슴 속에 뜨거움이 융솟음쳤다. “바로 이것 때문이구나!” 거의 한 사람도 눈을 뜬 사람들이 없이 자기들 방식대로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을 볼 때 복음 선교 사명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 간단한 선물증정과 쪽복음과 성경을 나누어 주었다. 아쉬웠던 점은 선물이 충분치 못했던 점(아무래도 생필품 같은 것이 있었으면 어땠을까?)과 간자체 성경의 부족이었다. 할 수 없이 양해를 구하면서 영어와 한국어로 된 성경을 주었다. 기도가 끝나고 잠시 삼삼오오 무리를 지어 담소할 시간이 있었는데, 여기서 또 하나 잊지 못할 경험은 말이 통해야 마음이 통하겠더라는 절실한 필요를 느낀 일이다. 뭘 좀 이야기하고 복음도 전하고 싶은데, 말을 할 수 없으면 ‘別無所用’, 그래서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실감났다. 어쨌든 종이가 동원되고 필담을 통해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썼는데, 그들이 서울에 대해 또는 인천 화교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꼈다. 할 수만 있다면 이들에게 후속적으로 관광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복음을 더 깊이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끝으로 이 배 선장의 호의로 간단히 배 안을 구경하고 아직도 비가 부슬부슬 오는 가운데 그들의 배웅을 뒤로 하며 작별을 고했다. 이날 우리는 송 간사로부터 질책아닌 질책을 들어야 했다. “당신들은 왜 사람들을 안 내려 보냅니까?”

“百聞而不如一見”

우리에게는 정말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고기가 찢어질 듯 가득찬 그물을 들고 손짓하는 동역자를 도울 태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다. ● (글-박혜영)



## “중국어로 선교를!”

- 중국선교훈련원, 그 문을 열다 -

### 중국어선교와 중국어.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한대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중국어를 하는 준비된 일꾼’을 보내달라고 아우성치지만 막상 이리저리 둘러봐도 보낼 사람이 흔치 않은 것이 현실이다. 당장, 인천항에 정박중인 중국배의 승선사역에도, 동북삼성 외의 중국인선교에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선교에도 속수무책이다. 이것이 숨김없는 한국교회의 현주소임을 솔직히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9월 14일 거행된 중국어문선교회의 <중국선교훈련원>의 개원은 정말 뜻깊은 일이었다. 선교일반을 제외한 나머지 80%를 중국어 훈련에 역점을 두게 될 본훈련원의 개원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든다는 게 중론. 한중수교라는 큰 문턱을 넘기 훨씬 전부터 준비되었어야 했다는 자성의 소리도 들린다.

방배동, 중국어문선교회와 마주한 이수성결교회 본당. 오후 2시, 중국선교훈련원 개원예배가 시작되었다.

총입학생 40명 중 주간반 입학생들과, 이모저모 중국선교의 현장에서 말없이 수고하며 기도하는 형제자매들, 예배의 말씀을 위하여 80 노구의 수고도 마다 않으시고 서신방지일 고문목사님, 격려사로, 축사로 함께 해 주신 김지일 장로님과 김바울 총신대신학원 교수님 등,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었지만 중국선교의 헌신을 다짐하며 새로운 출발을 감사하는 긴장된 열기가 감지되는 그런 자리였다.



중국의 거리

1957년, 중국에서 귀국하신 지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산동성 어루가 짙게 뻗은 중국어로 또박또박 설교하시는 방지일 목사님의 모습에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자신이 못다 한 귀한 일을 위해 이제라도 수고를 마다 않겠노라 다짐하시는, 외대의 초대 중국어학과 교수셨던 70을 훨씬 넘기신 김지일 장로님의 그 모습에서, 참석자 모두는 진한 감동을.. 김바울 목사님의 힘찬 말씀은 모두에게 비전과 도전을 새롭게 주기에 충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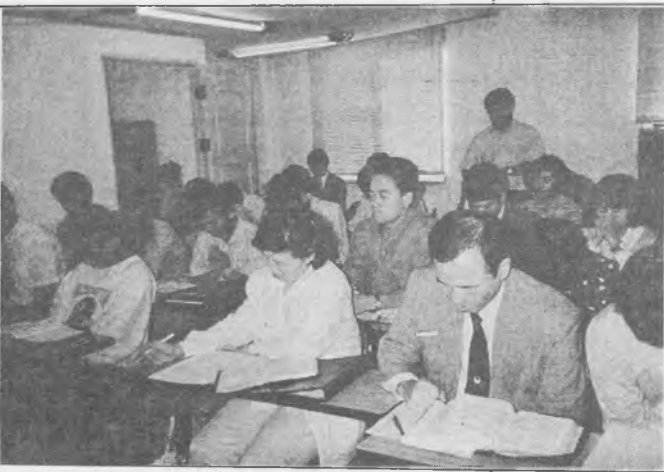
앞으로 1년 후.

한국교회는 40명의 준비된 중국선교의 정병들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일 뿐. 앞으로 1년, 2년,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의 준비된 정병들이 쏟아져 나와, 저 광대한 대륙으로, 후방의 지원현장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꿈꾸어보자! ●(글-박혜영)



주말반 개강예배  
이한수 목사

강의를 듣고 있는  
훈련원생들



기도하는  
훈련원생들



개원예배  
방지일 목사

개원예배 격려사  
김바울 목사



## 중국삼자교회의 이해

왕쓰웨이(홍콩CCRC연구원)

우리가 중국의 삼자교회를 이해하려 할 때 우선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중국의 '政治'라고 하는 '大氣候'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것은 중국대륙의 독특한 상황으로서 1949년 이래 중국의 교회상황은 늘 이 정치에 민감히 영향을 받아왔다.

사회주의 중국에서는 종교를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받아들인다. 물론 헌법에서 종교문제를 취급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종교문제를 법률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당의 정책으로써 다스려 가고 있다. 즉 중국정치의 대기후가 당정책으로 성립되고, 이것이 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곧바로 중국의 삼자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중국삼자교회의 이해에 앞서 필수적으로 중국의 정치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91년과 92년 2회에 걸쳐 중국당 총서기인 강택민이 중국의 5대 종교지도자들을 북경에 초치하여 접견하였다. 또 90년 8월 상해에서 제4차 중국기독교전국대회 상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데, 그 때 회장인 심이번이 그의 공작보고서에서 '반침투' '반화집단'이란 용어를 22번 언급했다. 이어 91년 12월 31일부터 92년 1월 7일까지 북경에서 열린 제5차 전국기독교전국대회 석상에서 부회장인 신덕용이 그의 공작 보고서에서 '반침투' '반외세'란 용어를 3번 사용했다.

이 사실을 그저 단순히 이해할 것인가? 중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정치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런 것이 정치 대기후가 의미하는 바이다. 나는 가끔 해외의 어떤 분들이 중국 3자회를 참관하고 돌아와서 쓴 글을 읽어 볼 때가 있다. 거기서 나는 종종 이분들이 정치와 종교의 관계를 이해치 못하고 대단히 위험한 글을 쓰고 있구나 하는 점을 느낀다. 이런 글들이 외부의 성도들에게 3자교회현황을 이해하는 데 득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독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 그러므로 3자교회의 표피만 본 후에 3자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삼자교회를 매도하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고 본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가 삼자교회의 현황이 어떠한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그것은 기후가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현황이 내일의 그것이라고 아무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중국교회의 현황이 현황이게 하는 원리나 동력, 즉 정치와 종교의 상호관계성에 유의함이 더욱 필요하리라 여겨 거기에 역점을 두고 얘기하려 한다.

1989년 6월의 천안문사태는 대단히 큰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중국의 보수파가 득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 사실은 78년, 79년의 덩소평의 개혁개방정책 이래 흘러온 정치적 대기후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다. 근 10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온 문화혁

여기서 우리가  
삼자교회의 현황이 어떠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별의미가 없다. 그것은 기후가  
수시로 바뀌는 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현황이 내일의 그것  
이라고 아무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오히려 중국교회의  
현황이 현황이게 하는 원리나 동력, 즉 정치와 종교의  
상호관계성에 유의함이 더욱 필요하리라.

명이 동소평의 재등장으로 비판받고 개혁개방이 계속되는 과정에서 保革세력간의 보이지 않는 암투가 계속되고 있었다. 경제개혁 정책을 주도해 온 동소평을 비롯한 조자양, 호요방 등의 개혁세력에 대하여 진운, 왕진, 이선녕 등의 보수파가 불만을 품고 대립하던 중, 1984년의 반정신오염 운동의 전개와 85년, 86년 대학생 시위로 말미암은 1986년의 반자생적자유화 운동은 개혁세력들의 대량 숙청을 몰고 왔다. 그렇지만 보수파들은 아직도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던 중에 1989년의 천안문 사태가 터진 것이다.

이 사태에 직면하여 동소평은 2가지의 큰 실수를 범했다. 그 한 가지는 무력진압을 허락한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동소평 스스로가 자유화를 비판한 사실이다. 이로 말미암아 보수파들에게는 자유화에 대한 계속적인 비판의 구실을 던져주게 되었다. 따라서 그때부터 1992년 2월 동소평의 남순강화가 발표되기까지 중국의 黨·政·宣傳·文化의 각 부문을 보수파가 완전히 장악할 수 있었다.

당의 이데올로기를 관장했던 호요방과 조자양의 브레인 탱크와 그 계열들이 무더기로 숙청되거나 해외로 망명하고, 총리인 이붕 등이 과열된 정치·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에서 당·정을 휘어잡는 데 있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조직의 인사관리부를 장악하는

것인데 그들은 이 부서를 틀어잡고 대대적인 실무자의 교체를 하였다. 동소평이 92년 2월 중국남부를 순행하기 직전까지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다. 비유하건대 '아무리 바늘로 찔러도 바늘이 들어가지 않고, 아무리 물을 끓여도 물이 끓여지지 않는' 상황이 그때 중국의 상황이었기에 동소평이 남순을 결행했다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동소평의 심천특구 방문내용의 기사가 '심천특구보'에 실린 한참 후에야 북경의 인민일보에 그 내용 그대로 일면톱기사로 실리게 된 일이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정치적인 대기후를 가늠케 해주는 사건들인 것이다.

아무튼 중국의 종교적분위기도 이런 정치적인 대기후에 영향을 입어 89년 이래 지금껏 위축되어 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런 위축분위기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던 또다른 이유를 들자면 2가지를 더 들 수 있다. 그 한 가지는 소련 및 동구몰락에 종교의 역할이 지대했다는 사실에 당국자들이 주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고 둘째는 최근 중국공산당원 중에 예수를 믿는 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심지어 어느 지역의 국민학교에서는 예수 믿는 교원의 수가 증가하여 교실에서 찬양을 가르치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었다. 이에 자극받은 중국은 91년 8월, 국가교육위원회의 문건을 발표하여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

중국에서는 지방에  
내려가 보면 '법'보다 '문건'이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되어있음을 발견한다.  
중국의 법개념은 우리의 그것과 는 사뭇 다르다  
어떤 일들이 '법'으로 처리되기보다는  
정책적인 '문건'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치지 말도록 지시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요즈음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방문객들의 입을 통해 중국의 가정교회가 핍박을 많이 받고 있더라는 내용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전체적인 기후의 영향인 것이다. 앞에서 대강 정치적 대기후에 의한 종교적 위축상황을 이야기했거니와 삼자교회와 정치기후의 역학관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중국에서는 지방에 내려가 보면 '법'보다 '문건'이 더욱 무서운 존재가 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중국의 법개념은 우리의 그것과는 사뭇 다르다. 어떤 일들이 '법'으로 처리되기보다는 정책적인 '문건'에 좌우되기 십상이다. 이것을 모르는 외국인들이 선교하러 갔다가 난처함을 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한 예로 90년 북경올림픽 때 무더기로 선교차 갔던 분들도 경험했으리라 믿는다.

금년 2월 天風이란 잡지에 삼자교회의 최근동향에 대한 글이 실렸는데 일면 보기에는 뻔한 내용이었으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파할 수 있었다. 삼자교회가 나름대로 삼자원칙의 틀안에서 목양과 자립을 위해 애쓰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중 일부가 매도하는 그런 교회로서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며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잘 이끌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외에도 여러 인사를 접촉하는 가운데 느낄 수 있었다. 좀 사족 같지만 중국이나 홍콩에서 나오는 신문이나 잡지들을 읽을 때 보다 세심

한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 들자면, 중국의 인민일보나 광명일보에서 문자 그대로의 'NEWS'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80년 모월에 나온 기사인지, 92년 8월에 나온 기사인지 구분이 안 가는 기사가 실리는가 하면 많은 기사가 정치적 의도를 띤 운동으로 처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외에 그것이 친중국계인지 친대만계인지에 따라 보도가 엇갈리고 신빙성의 정도가 틀려지기도 한다. 그러므로 그런 글들을 읽을 때에는 표면적인 문자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이면을 읽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론 국내보도에 있어서도 선별능력이 필히 요구됨은 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삼자교회는 교역자의 노령화라는 심각한 양상에 부딪혀 있는데 심천에 단 한 곳밖에 없는 삼자교회에 82세인 단 한 분의 목사님이 현역으로 시무하고 있을 정도이다. 그 후계자라야 62세의 '젊은' 사람이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년 1월 6일, 승문문교회에서 45명(대부분 30대전후)에 대한 합동목사안수식이 거행됐다고 하는 소식은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 이런 일은 그래도 삼자교회가 애쓰고 있다는 징표로 받아들여도 좋으리라고 생각한다.

5차 중국기독교전국대회가 개최되기 얼마전에 '天風'의 한 기자가 삼자회, 기협 주석인 정광훈과 인터뷰한 것을 읽었는데, 그가 "요즈음 삼자교회의 깃발을 얼마만큼 걸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말한 기사를 놓고, 나는 처음에는 요즈음 음성적인 선교행

중국에 한번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 들어보고  
어느 상황을 한 번 본 것으로써 중국삼자교회가 이렇더라  
저렇더라식의 표피적인 이해를 갖는다면, 중국에 있어  
서의 선교는 결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태에 일침을 가하려는 줄만 알았다. 최근의 종교억압의 기후에서 등록, 미등록을 가리지 않고 처소교회들이 정부당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터였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더 자세히 들어가면서 분석해 보자니 이것은 꼭 선교사에 대해서만 말한 것이 아니고 정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즉 당 간부가 교회에 간섭하며 심지어 교회 안에서 무신론을 선포하기까지 하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것이었다. 중국에서는 합법적인 유신론 장소에서 무신론을 강요해도, 합법적인 무신론의 장소에서 유신론을 강요하는 것과 똑같이 불법이 되기 때문인 것이다. 또 기독교전국대회 기간중 여러 가지 활발한 문제제기가 회의석상을 비껴가는 슬기를 발휘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도 삼자교회의 교회다우려는 몸부림으로 봐도 좋으리라고 생각된다. 이는 정광훈이 "당신은 중국에 대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고 한 어떤 기자의 질문에, "나는 중국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게 소원"이라고 대답한 데서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그렇다면 어떤 이는 이렇게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으리라.

지난 89년 4,5월 시위가 심했을 때, 정광훈이 학생들을 지지한다고 전국인민대표회의의 萬里에게 편지를 써보내 놓고, 그해 9월 천안문사태가 진압된 이후 9월 '천풍'지에 총리 강택민의 중공당 공식입장의 6·4 해석을 옹호지지한다고 했으니 그는 변절자가 아니냐고 반박할 수도 있다.

만약 우리가 자본주의식으로 이 사건을 이야기한다면 사회주의의 중국사회를 이해할 도리가 없게 된다. 그를 오직 사이비 변절자로밖에 해석할 방도가 없다. 그러나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의 그 사회와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진심을 발견해 줄 수 있어야 하리라 믿는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구역', '정해진 사람'에게만 종교활동을 할 수 있다는 '三定정책'이 통용되고 있는 사회주의의 불합리한 체제에서 교회가 살아남고 선교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어떤 자세가 필요할까?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 분명히 서서 분별해야 함이 대전제이기는 하지만, 중국에 한 번 가서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한 번 들어보고 어느 상황을 한 번 본 것으로써 중국삼자교회가 이렇더라 저렇더라식의 표피적인 이해를 갖는다면, 중국에 있어서의 선교는 결코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중국의 삼자교회를 이해하고 바른 선교를 행하려 할 때 앞서의 이런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

\* 위 글은 8월 10일 중국어문선교회가 주최(장소: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관)한 정기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 것임.

# 가정교회의 분열과 문제점

牧 民

번역: 박현희(중국어문선교회 회원)

근래 세관이 개방되고  
외국 성도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에  
성경과 신앙서적이 없음을 발견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과 신앙서적을 갖고 들어왔으며  
어떤 이는 성금을 갖고 들어왔다. 이 물건  
들의 유입이 교회에 분열을 초래했다.

## 외국 성경과 신앙서적의 유입

중국 가정교회 문제와 내지교회 분열 등의 원인을 든다면 적지 않겠지만 그 중 한 가지 원인으로서는 외국물자의 유입을 들 수 있다.

근래 세관이 개방되고 외국 성도들이 중국을 방문하면서 중국에 성경과 신앙서적이 없음을 발견하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성경과 신앙서적을 갖고 들어왔으며 어떤 이는 성금을 갖고 들어왔다. 이 물건들의 유입이 교회에 분열을 초래했다. 애초에 성경이나 신앙서적을 보내는 것은 대단히 효과적이었고 매우 큰 계발과 격려 작용을 일으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유입되는 수량이 많아지자 돈과 금전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세력을 키우기 시작했고 이 사람들은 서적과 원조받은 물자를 그 자신 기반세력의 뒷받침으로 삼았다.

누구든지 그를 따르며 말을 듣는 자에게는 서적을 나눠주고 도와주었다. 중국교회의 상황을 보면 특히 농촌에 가정교회가 많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나, 중국의 농업은 여전히 아주 낙후되어 있고 게다가 많은 자연재해로 인해 대다수 농촌 신도들의 생활은 어려운 편이며, 교회의 지도자도 매우 고달픈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물질들이 들어온 뒤 많은 사람들이 물질과 성경·신앙서적을 필요로 하게 되어, 자연히 서적과 물자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을 추종하게 된 것이다.

그들에게 찬성치 않거나 혹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색분자로 취급해 서적이나 물건들을 주지 않자 이들은 외부에 원조를 구하기 시작했는데, 어떤 이들은 심지어 광주 상해 등지까지 갔다. 그들은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해서 해외 성도와 연락을 취했는데 그 목적은 단지 서적을 얻으려는 것이었으며, 그것을 얻은 후 본교장으로 돌아가서 다른 이들과 대항하여 또 다른 한 파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해외의 성도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힘을 다하여 운송을 지원하여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다. 그러므로 해외 성도의 무분별한 원조는 가정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던 주요 요소 중의 하나이다.

## 지혜롭게 신앙서적과 선교비를 공급해야

앞으로 중국 가정교회가 나아갈 길에 대해 우리는 마땅히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간구해야 한다. 해외와 내지의 동역자들이 협력하려면 정확한 사역 방법이 있어야 한다. 특별히 해외 동역자들은 적당한 방법으로 그들을 도울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데, 도대체 어떤 방법이어야 하는가? 주여, 우리에게 밝은 빛을 주옵소서! 서적의 공급은 결코 맹목적이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의 손에 전달되어야지 불필요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런 일에 방법을 개선하고 원칙을

세울 수 있다면 교회는 도움과 양성을 받을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전에도 이러한 현상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서적을 얻고서 보지도 않고 자기 잇속거리로 삼았다. 필자가 한번은 농촌에 갔는데 지식도 없고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한 형제가 매우 흥분해서 책을 가져가길래 난 그에게 “이 책의 내용이 어떠냐?”고 물었다. 이 책은 책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책 표지에는 그림이나 연도 같은 것이 그려져 있었으며 훌륭한 장정의 것이었다. 그 형제는 책 표지를 밑으로, 책 바닥을 위로 진열해 놓은 채 나에게 “이 책이 아주 훌륭하다”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도대체 무슨 책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나는 글자를 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책이 좋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이 책을 준 사람이 매우 영적인 사람이며 교회의 훌륭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대답했다. 내가 이 책을 펼쳐보니 그것은 정교한 장정의 성경주석서였다. 주를 믿은 지 얼마 되지 않고 게다가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성경주석서를 얻게 되다니 실로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는 이 책을 얻는 자체가 아주 영적인 일이 되며 또한 교회의 지도자가 그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겨주고, 이 책을 얻게 된 일로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실 것이라 생각했다. 그는 글을 읽을 줄 몰랐으므로 책을 거꾸로 진열해 놓았던 것이다. 필자가 다른 자매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몇 개월 된 아이가 신약성경을 장난감 삼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이 광경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아기 어머니에게 “당신은 어떻게 아기에게 성경을 주어 놀게 할 수 있느냐?” 물었을 때 그녀는 “나는 성경이 4권이나 되니까 상관없다”고 했다. 이유인즉 교회 지도자가 늘 그녀의 집에서 식사를 대접받았던 까닭에 그 댓가로 성경을 주었던 것이다. 해외 성도들이 어렵게 성경을 국내에 들여와 적절하게 공급하지 못해 들여간 본래의 목적을 상실케 되었으니 이는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것은 신앙에 대한 정확한 태도와 인식도 없고 영적으로도 성숙



하지 못한 채로 개인의 세력 범위를 넓히고자 자기 자신의 사사로운 잇속을 위해 귀한 성경을 헛되이 사용했기 때문인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허비하고 또한 많은 해외 성도들의 염원을 저버리게 된 것이다.

그 밖에 어떤 사람은 자기 견해와 다른 신앙서적은 눈에 뜨이는 대로 불태워 버렸고, 어떤 이는 책을 읽고 난 후 책에서 말한 말씀에 반대하여 이단이라 하면서 그 책을 불태워 버렸다. 그들은 이런 책들은 빨리 불태워야지 그렇지 않으면 널리 퍼질 것이라고까지 말하니, 이러한 현상 역시 우리의 마음 아프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것은 단지 소수지방에서 존재할 뿐으로 우리가 중국교회가 잘 일어서도록 도우려면 서적의 공급 및 분배가 적절히 되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비록 표면상으로 보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으나 이것들은 농촌의 교회에서 매우 큰 작용과 영향을 불러 일으켰다. 그들은 문화정도가 낮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이해 역시 비교적 얕아 다만 표면만을 보기 쉽다. 소수 사람들이 표면의 물질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긴다. 그리고 자신의 기반이 든든하고 신도가 많은 것이 바로 주의 축복을 받은 것이며 자신만이 옳은 것이라 하니 이러한 일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인 것이다.

### 교회 사역자의 영적 양육이 부족하다.

그 다음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은 교회사역자의 양육 부족과 영적 미성숙으로 인해 일시적 열심이나 사람의 방법을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는 점을 들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성령이 도우심을 힘입지 않고 그들 자신의 방법만을 사용한다면 어떻게 효과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는 결과적으로 교회내에 질투와 분쟁을 일으킬 뿐이다. 한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교인수가 적지 않은 교회에 지도자 하나가 있었는데 그는 원래 정치를 하던 사람이었다. 이전에 정치부 주임이었다가 후에 은혜를 받고 주께 돌아왔는데 교회의 형제자매들은 그를 매우 존경했다. 그는 지역에서 정치 지도자였으므로 예수를 믿은 후 교회에서도 역시 제 1인자여야 하며 선두에 있어야 된다고 여겼다. 그는 정치를 할 때 쓰던 방법으로 신도를 이끌었고 설교 역시 마치 정치 보고를 하는 것 같이 설명문을 베껴서 강단에 올라가 한번 읽어 줄 뿐이었다. 그러니 영감이나 영적 능력이 있을 리 만무였다. 성도 중에서 영적으로 갈급하여 이러한 설교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정 생명있고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이들은 자연스럽게 그 지도자와 마음이 맞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권위를 이용하여 자기와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을 제명하여 버렸고 일부 형제가 굽히지 않고 “의견이 다르니 협력할 수 없다”고 반대를 표시하자 서로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리하여 교회에 분열이 일어났다.

### 성경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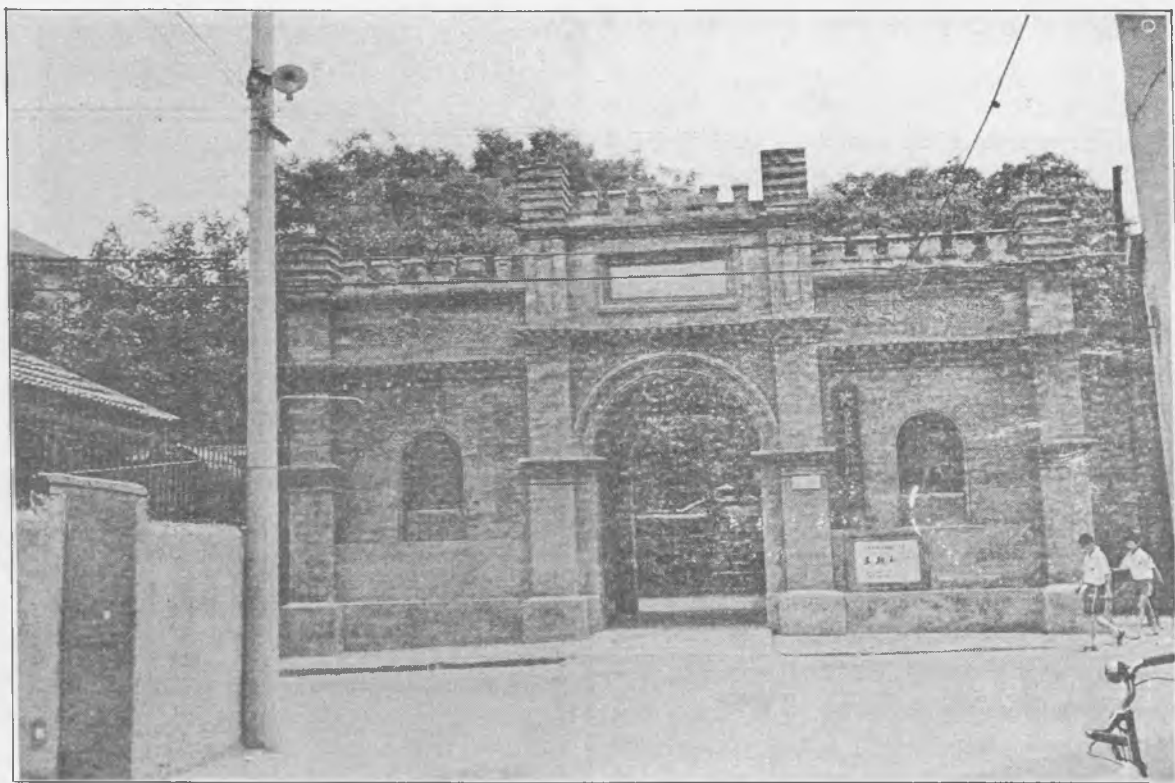
근래 어떤 곳에서는 성경 속에서 근거를 찾아 떠돌석했다. 그 이유인즉 어떤 이가 상대방이 틀렸다고 지적하면 그 상대방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 자신이 옳다는 것을 말해야 하며 성경의 근거가 없으면 틀리는 것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성경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성경에서 자기와 부합되는 구절을 찾아 자기의 이익과 견해를 옹호하며 “나는 성경의 근거가 있으니 옳다”고 표명하는 것이다. 물론 성경구절은 좋은 것이나 만약 자기가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성경구절을 올바로 깨닫고 소화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융화시켜 나갈 수 없다. 이것은 성경구절을 빙자해서 단지 스스로 하나의 명에로 뻔 뿐이지 성도에게 진정한 영적 성장을 가져오게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은 오로지 성경을 방패 삼아 타인이 그에 대해 말하면 즉시 성경의 근거를 들어 자신은 오류가 없다고 반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스스로 잘못된 신념을 갖게 될 뿐이다. 한 예로서 어느 성의 한 교회에 두 명의 사역자가 있었다. 그들은 81년부터 시작해서 그다지 화목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피차 권력을 다투는 데 있었다. 이 둘 다 서로 제 1인자가 되려고 다투던 중, 마침내 성경에서 근거를 찾기에 이르렀다. 후에 외부에서 온 성도를 우연히 만나 그에게서 또 다른 도리를 전해 듣게 되었다. 이때 한 사역자는 찬성했고 다른 이는 반대하여 둘은 서로 성경의 근거가 있다며 크게 쟁론하기 시작하여 끝내는 싸움까지 벌어지고야 말았다. 이러한 일은 비일비재하다. 이 외에도 이런 문제로 인해 모너지간에 서로 대화하지도 않고 한술밥도 먹지 않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어머니가 한 밥을 딸이 먹지 않고, 딸이 사온 물건을 어머니가 받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단지 서로 의견이 다르므로 이단이라 생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렀으니 이런 교회가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겠는가?

### 소파벌이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는 성령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곡된 성령충만의 현상으로 인해 중국에서는 대단히 비정상적인 파문을 일으켰고 교회에도 많은 골칫거리를 안겨주었다. 중국에도 역시 약간의 작은 파벌들이 존재한다. 아마도 진리 지식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파벌들이 매우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 복음파를 예로 들면, 중국의 복음파는 결코 외부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음파가 아니라 오로지 4복음서만을 중시한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만이 가장 좋고 귀한 것이며, 그 외 선지자의 말, 사도의 말과 가르침은 전부 필요치 않다고 하면서, 오로지 4복음서만을 전하는데, 이 파벌의 힘은 그리 크지 않고 다만 문화정도가 비교적 낮은 농촌신도 사이에서 성행한다. 또 최근 중국에 靈靈教가 출현했는데 그들의



신앙표현이 아주 비정상적이나 전체 교회에 대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그 외 산둥, 안휘 일대에 예수가정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들은 이전의 예수가정의 상황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함께 생활하고 한방에 함께 묵으면서, 물건이 있으면 함께 쓰고 함께 생활하려는 의지가 매우 강하나 이 영향력 역시 별로 크지는 않다. 그 외 예수재림파가 있다. 이 파는 예수 재림의 시기와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몇 년 전 중국 북방 내지에서는 영향이 매우 커서 이 종파에 미혹된 많은 사람들이 가산을 모두 팔아버리고 그들을 따라갔다. 이들은 아무 것도 원치 않고 오로지 예수가 와서 그들을 맞이해 가길 기다렸으나 내부에 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현재는 두 파로 갈라졌다. 결국 그 중 구원을 보증하지 못한다고 말하던 세력이 점차 적어져 갔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은혜 받고 중생한 이후라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혹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즉시 버림받고 멸망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에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며 또한 우리를 버

리실 리가 없으나, 그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깊고 크신 은혜를 체험케 하시며, 연약한 중에서 우리를 진보케 하시고, 또한 한 걸음 한 걸음 굳세게 하신다.

중국에서 아직도 성행하고 있는 靈恩방언파는 반드시 방언을 해야된다고 주장하며 심지어 「인공방언」으로까지 발전했다. 신자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 그의 목을 꼭 잡아 그로 인해 목소리가 변하여 원래와 다른 소리가 나오면 방언에 성공했다고 하며, 방언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여긴다.

이 파들로 인하여 중국교회는 어려움에 직면케 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진정한 성령 충만이 절실히 필요하다. 왜인가? 성령 충만해야만 승리할 수 있고 육체를 극복하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며, 내외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용감히 복음을 전파하게 된다. 그러나 중국에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으니 주여, 긍휼히 여기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받아 온전히 주의 일을 감당케 하옵소서! 아멘.

머리에 수건 쓰는 일, 권력, 지역적 입장의 문제

중국 가정교회는 외관상으로는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영적 과정이나 봉사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이 파벌들은 중국교회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그들이 발간한 서적이 적지 않으며 침투정도도 비교적 심각하다. 지리적으로는 남방 및 절강, 복건 등지에 많이 위치해 있다. 야기된 문제 또한 적지 않은데, 그 중 한 가지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서 교회의 분열을 초래했다. 왜냐하면 교회의 자매들은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파와 이에 적응치 못하는 이들과의 의견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두번째는 권력의 문제인데, 연장자에게 권력이 있으므로 연소자는 마땅히 연장자에게 복종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지상에 있는 권력은 거역해서는 안되며 국가의 권력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한 편의 국가권력을 논한 글이 있었다. 어떤 교회의 지도자는 이 글을 확대 해석하여 교회의 영적인 권세 역시 거역해서는 안되며 모든 신도는 반드시 교회의 권세에 복종해야 하며 어쨌든 지도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또 착오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지역교회에 연로한 한 형제분이 있었는데 주를 위해 7년 간 감옥 생활을 했다. 석방 후 교회에 돌아오자 주를 위해 고통을 당했으므로 형제자매들이 그를 매우 존중해 주었다. 이 형제는 자기가 연장자이고 또 주를 위해 고난을 받았으니 당연히 교회에서 권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매년 무슨 회의석상에서든지 한 마디도 않고 있다가 다 결정된 뒤에 일어나서는 다른 이들이 이미 결의한 사항을 하나같이 반대해 버렸다. 어떤 이가 반대를 제기하면 그는 “나는 그럴 권리가 있다. 나는 주를 위해 7년 옥살이를 했으니 너희 중 누구든지 듣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것은 주님이 내게 주신 권세다”라고 강변하였다. 이것은 교회의 동역자들을 애먹이는 매우 분명한 착오이다.

세번째 문제는 지역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으로 어떤 이들은 이 지역에서는 오로지 우리 교회만이 교회를 대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이 지



방에 있어서는 안되며 교회를 세우며 집회를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했다. 즉 이 지역에 우리 교회가 있는데 만약 다른 교회가 또 있다면 그 교회는 유일한 교회인 우리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 밖에서는 교회일 수가 없으며 자기들의 집회만이 교회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 특유의 형식을 요구하게 되고 권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보면 개인의 경력, 성경구절의 字句(문자와 어구, 문맥), 영적인 형식, 서적, 물질 등등이 모두 교회의 분열을 조성하는 주요 원인이다. 앞으로 어떻게 그것을 제거해야 할까? 아마도 교회가 하나되게 하려면 더욱 어렵고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다만 성령께서 일하셔서 사역자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이다. 외부의 사역자들은 밝은 지혜로써 중국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도울 때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외부의 형제자매들이 중국으로 들어와 돕는 것은 좋은 일이며 절박하게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진리에 관한 지식을 중국교회에 가져다 주되 중국 각 지역의 상황을 이해해야만 하며 많이 기도한 후에 현지교회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어야 한다. 각지 교회의 정도의 차를 고려하지 않고 마치 영적 서적을 공급하는 일을 동일한 상품을 나눠 보내듯이 하고 게다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관없다는 식이라든가 원치 않으면 그만두지하는 태도는 곤란하다. 그렇게 되면 영향력도 감소되고 효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 중국은 땅이 넓고 각 지역 민족의 상황 정도가 다르므로 성경에 대한 이해 정도 역시 다르고, 필요한 진리로 양육하는 일과 공급도 다를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제때에 양식을 나눠줄 수 있다면 가장 좋으리라 생각한다. 만약 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으려면 지혜를 갖고 각지 가정교회의 구체적 상황을 좀 더 철저히 이해하여 돕게 될 때 중국 가정교회를 보다 더 훌륭하게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 복음 사역의 은밀한 근심과 교회의 원칙

현재 많은 가정교회에 매우 큰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만약 어느 날 주님께서 중국교회에 은혜를 내리사 크게 개방된다면 그 때 중국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이며, 이것이 좋은 현상이 될 것인가? 혹은 나쁜 현상이 될 것인가? 우리 모두는 주께서 크게 문을 열어 더 많은 주의 일꾼이 들어와 주를 위해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는데 이것은 좋은 희망이다. 그러나 깊이 파고 들어가 생각한다면 국외의 상황은 매우 복잡한 것이어서, 그 때 중국교회는 매우 큰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각양각색의 온갖 사조가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온다면 그때는 정말 정확한 것·잘못된 것, 좋은 것·나쁜 것을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것이며, 중구난방으로 어느 것이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 어느 것이 정확하고 잘못된 것인지 분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걱정하는 한 가지 문제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서 대문을 열어주시길 구하면서도 이것들을 생각할 때는 감히 기도하지 못한다. 더구나 주님께 문을 닫아 달라고 구하는 것, 또한 옳지 못한 일

이니, 어떻게 자기를 안에 가둬 달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 “주여, 문틈만 조금 열어 주시면 족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일일는지요?” 내 자신은 확신이 없다. 만약 크게 문이 열린다면 그 후의 결과에 대해 약간 걱정이 된다. 해외의 성도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사실상 현재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오는 파벌 역시 완전히 순수한 것은 아니다. 현재에 이르러 내가 이해하는 것은 摩門教, 天父的孩子會, 新使徒會, 新靈恩과 등 불완전하고 순수하지 못한 교파가 있다는 것이다.

나는 통일된 인식이 없이 통일된 보조를 취하려 하기 전에,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시는 위탁하심과 인도를 따라서 충성스럽게 주를 섬겨야 하며, 더욱이나 관용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현재 아직 하나되지 못한 상황하에서, 만약 그가 주를 사랑하며, 죄를 미워하고, 열렬하고 간절히 주 예수가 오시길 희망하며, 복음 전하는 일에 노력한다는 이 4개원칙이 있다면 나는 그를 받아들이고 승인할 것이다. 경력이 달라도 상관없고 다만 그와 주님과와의 관계가 좋고, 진정으로 십자가 아래서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열심히 주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치 않는다면 족하다. 이 4개 원칙에 따라 각 지방에 가서 교회를 방문하고 그들과의 교제가 좋다면 교회의 혼란과 분열을 조성하는 특별한 요인이 생겨나지 않을 것이다. 만약 외부의 성도들 역시 이 4개원칙을 따르게 된다면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중국교회 대강의 상황이며 가정교회의 생성, 발전 및 예견되는 장래의 어려움 등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나의 견해는 단편적이며 완전하지 않다. 주께서 온전히 밝은 빛을 계시해 주시기를 희망한다. 중국교회에 사명감을 갖고, 중국인민의 영혼에 책임을 느끼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주의 밝은 빛 아래서 주를 위하여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며 다시 오시는 주 예수를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

(『中國與教會』 90期 중에서)

# 여의료선교사 康成 사랑이 충만했던



서울대 중국어 성경반 제공

康成(1873~1930), 그의 외국인 친구는 그녀를 康依達(Ida Kahn)이라고 부른다. 그는 교회에서 양성되어 미국에 유학하고 고국으로 돌아와 일한 유명한 여의사이다. 그녀는 현대의학의 지식과 시설을 우선 강서성의 남창에 소개했다. 광서 29년부터 계속하여 민국 19년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27년 동안, 그녀는 南昌에서 헌신적으로 의료사업을 했다.

康成은 또 경건한 기독교 美以美會의 신도로서, 평생토록 기독교 사랑에 터하여 적극적으로 기독교 사랑의 교육과 사회복지계획을 제창하였고 탁월한 공헌을 했다. 康成은 淸나라 同治 12년(1873)에 태어났으며 江西省 九江사람이다. 빈곤한데다가 남존여비 사상이 농후한 가정출신이었다. 그녀 위로 5명의 언니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가 사내아이의 출생을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럴 때에 그녀의 출생은 부모를 크게 실망시

켰다. 때문에 美以美會의 선교사가 九江에서 이 아이를 대신 양육하여 康씨집을 도와 가정의 경제적 곤란을 덜어주려 하였을 때 康成의 부모는 선교사의 청을 곧바로 승낙하였다. 이리하여 선교사는 어렸을 때부터 그녀를 받아 길렀다.

몇 년 후에 康成은 선교사가 창립한 九江 儒勵여학교에서 학업을 시작했다. 함께 배운 사람 중에 石美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나중에 그녀의 가장 친밀한 친구이자 동역자가 되었다. 광서 8년(1882), 康成이 9살 때 선교사를 따라 중국을 떠나 미국으로 여행을 갔다가 샌프란시스코의 학교에 들어가 공부했다. 2년 후(1884)에 중국으로 돌아왔고, 이후로 2년 동안 선교사를 따라서 重慶에 머물렀는데 선교사가 華西지역에서 美以美會를 발전시키는 일 때문에 중경으로 파견되었기 때문이었다. 광서 12년(1886)에 그들은 다시 九江으로 돌아왔고

康成은 儒勸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13세까지 계속하였다. 광서 18년(1892), 선교사의 보호 아래 康成과 石美玉 2명은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들 모두는 의학을 공부하여 세상사람을 구제할 뜻을 품었다. 미시간 대학의 의학원은 그들의 입학신청을 받아주었다. 두 사람은 입학하여 열심히 공부하여 광서 22년(1896) 봄에 순조롭게 졸업증서를 받았다. 뒤이어 轉往芝加 선배의 병원에서 반 년 간 실습을 하고 같은해 가을에 康成과 石美玉은 바로 귀국하지 않고, 정식으로 美以美會 부녀국외전교부의 파송과 지원을 받는 의료선교사로서 동포를 위해 일할 준비를 했다. 九江에 돌아온 康 의사와 石 의사는 그들의 의료전도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시켰다.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겨우 한 칸밖에 되지않는 진료실에서 10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에 2,000여 명의 환자를 돌본 눈부신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康成과 石美玉 두 여의사는 그 지역 사람의 확고한 신뢰를 얻었고 그 지역 동포 부녀들은 모두 그들의 권고를 받아들여 현대적인 진료를 받으러 왔다.

光緒 24년(1898) 石美玉 의사의 미국인 친구인 시카고의 名醫 Issac Newton Danforth는 일체의 경비를 자신이 부담하고 九江에 병원 하나를 건립하고자 했다. 그 때에 康成과 石美玉이 적극적으로 대지를 찾아서 건축을 했는데 그 기간에 때마침 庚子의 난(1900)을 만나 康成 등은 난리를 피해 일본으로 갔다가 광서 27년에 비로소 九江에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그해 12월 7일에 이르러서야 병원을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이 병원의 이름은 九江婦幼醫院(Elizabeth Skelton Danforth Hospital)이라고 했다. 광서 29년(1903)에 康成은 九江의료사업이 잘 발전하는 것을 보고 九江을 떠나 南昌으로 가서 새로운 의료선교사업을 준비했다. 그녀는 남창에서 먼저 진료소를 세우고 광서 31년(1905)말에는 새로운 진료소의 낙성을 보았다. 몇 년의 수고 끝에 의료사업이 착실히 커갔는데 광서 37년 연말 기록을 보면 8천여 환자들이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康成은 의료사업으로 바빴을 뿐만 아니라 북음선교와 사회개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

으며 중국교육촉진 사업에도 힘썼다. 광서 31년(1905)에 그녀는 상해에서 열린 중국교육협회 5차대회에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 의학교육방면에 관한 내용의 주제를 논한 것이었다.

광서 34년(1908) 康成은 장기 휴가를 틈타 다시 미국으로 건너가 서북대학(North-western University)에 진학해 문학을 연구했는데 3년의 과정을 2년에 마쳤다. 宣統 2년(1910) 봄에 그녀는 여청년회 대표의 신분으로 베를린에서 열린 연회에 참석했는데 회의 후에 영국으로 가서 반 년 동안 체류하면서 열대질병을 연구하고 동시에 서북대학의 학사논문을 완성했다. 宣統 3년(1911) 1월 학사학위를 받고 3월에 다시 남창으로 돌아왔다. 그해 10월 남창혁명이 일어났다. 康成은 수년 동안 계획한 병상 24개 규모의 병원을 개설하여 민중을 위해 일했는데 혁명기간에도 병원을 열어 濟世救人이라는 기치 아래 청나라 군과 혁명당을 함께 돌보아 주었다.

婦幼醫院 낙성 후 계속 무료로 가난한 환자를 치료해 주어서 병원에 적자가 생겨 상당한 빚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康成은 자기를 희생하기로 하고 멀리 天津으로 건너갔다. 천진지역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며 의사생활을 한 결과, 3년내에 빚을 청산하고 다시 남창으로 돌아와 婦幼병원을 맡게 되었다. 남창 정부 당국에서는 그녀가 지방에 기여한 공헌에 감사를 표하기 위해 두 차례 기금을 전달했는데 婦幼병원은 그로 인해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民國 15년(1926), 그녀의 건강상태는 날로 악화되고 병원운영은 그녀의 심신을 피로하게 했다. 民國 19년 상해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때 그녀의 나이는 58세였다. 그녀의 전생애를 종합해 돌이켜보면 그는 의사요 교육자로서 또 사회 사업가이면서 종교인으로서의 역할을 한 몸에 조화시킨 근대의 걸출한 여성이었다. 기독교의 사랑으로써 그녀는 조국의 동포와 특히 부녀들을 위해 비할 데 없는 광채를 발하였는데 실로 사람들의 존경과 회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하겠다.●

(『中國基督教人物小傳 上卷』 중에서)

## 곳곳마다 만난 하나님의 성소

나와 그들 모두가 구름에  
달을 쫓는 나그네였으나, 어느 날  
聖所에 보금자리를 틀게 되었다.

芮 虎

(번역: 양승훈)

“할렐루야 그 聖所에서 하나님을 讚揚하며 그 權能의 穹蒼에서 그를 讚揚할지이다.”

(詩篇 150章 1節)

1985년, 내 나이 삼십이 가까울 무렵 나는 終身信仰을 택하게 되었는데, 예수를 따르고 믿으면서 주님을 讚揚하게 된 것이다. 나를 引導하고 깨우쳐 준 이는 미국에서 온 한 형제분이었다. 당시 그는 成都에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우리 聖經班을 지도하고 있었다. 그때 나는 어려서부터 머리에 박힌 다윈의 進化論으로 하나님의 創造說을 반박하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基督教 敎理에 감복되어 그가 투숙하고 있던 여관의 욕조 안에서 洗禮를 받게 되었다.

그 푸른 물에 잠겼을 때, 나는 드넓은 바다와 무성한 감람나무 숲과 흰 빛 비둘기가 蒼空을 즐거이 나는 것을 보았다. 몸을 일으키니 문득 앞에 금빛 찬란한 天穹 같은 건물에서 너무나도 高潔하게 차려입은 두 天使가 내게로 다가와 나를 맞

아들이는 것이었다. 나와 같이 洗禮를 받은 貴陽人인 한 姊妹도 물 속에서 일어서자 눈에 눈물이 가득한 것을 보니 이 아가씨도 분명 나와 같이 이 광경을 본 것이 틀림이 없었다. 그 당시 우리는 달리 나가는 教會도 없어 단지 집에서 집회를 갖고, 聖經을 奉讀하고, 讚頌歌를 부르면서 주님을 敬拜했다. 우리의 이와 같은 신앙을 당국에서는 불법으로 간주하여 우리 형제자매들이 자주 소환되어 심문을 받거나 구금이 되고, 심지어는 장기 복역까지 하게 되었는데, 나를 주께로 인도한 형제도 압력을 받아 成都를 떠나게 되었다. 그 당시 聖所가 우리에게 꿈에도 상상치 못한 곳이었다.

내가 처음 발을 내딛은 교회는 泰國 북부 변두리 만싱티(音譯)지역의 중국인 난민촌에 있는 「眞光堂」이었다. 天安門 광장의 충성, 버마 정글 속의 맹수에 대한 공포, 버마 유격대의 겁탈, 버마 감옥의 잔악성 등 이런 많은 역경들을 거치면서 1990년 2월, 드디어 주님의 인

도 아래 이곳에 다다른 것이다. 眞光堂은 산허리에 위치해 있어 앞에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주위는 질푸른 나무로 둘러싸여 참으로 고요하고 쾌적한 곳이었다.

교회 건물은 마치 중국의 孔子廟와 같았지만 그 안에는 至聖先師 孔子位牌 대신에 검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전도사는 중국인 부부였다. 남편은 자주 그 험난한 산악지대를 넘어 부근의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했기 때문에 師母가 주일예배를 인도했다. 그녀는 기다란 원피스를 입고 설교와 기도를 하며 또 풍금을 치면서 찬송가를 인도할 때, 그 맑은 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울려오는 듯 했다.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국인이거나 그 후손들이었다. 그들 중에는 40년 전 雲南省에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다가 이곳에 정착하게 된 군인도 드물지 않게 많았다. 그러나 타향살이의 이와 같은 서러움도 이제 이 생명수와 같은 찬송가에 다 용해되어 사라져 갔다. 나와 그들 모두가 구

編輯者註: 芮虎는 中國학자로서 四川省사람이다. 85년 주를 믿으면서 세례를 받아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러다 民主運動 후에 독일에 거주하면서 自由寄稿家로 활동하고 있다.

름에 달을 쫓는 떠돌이였으나, 이제 이 성소에서 보금자리를 틀게 된 것이다.

태국 수도 방콕시 중심 피우리타街(音譯) 17번지에 교회당이 하나 있는데 안에는 주를 상징하는 아무런 십자상도 보이지 않고 또 아무런 악기도 없었다. 그러나 일요일 9시만 되면 이곳은 신자들이 가득히 앉아 예배를 드린다.

예배때가 되면 양복에 넥타이를 맨 미국인 전도사와 몇 명의 형제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영어와 태국어로 통역을 했다. 어떤 경우는 한 자매가 강대 아래에서 중국어로 동시통역을 하곤 했다. 악기가 없는 고로 찬송은 무반주의 대합창이었다. 어떻게 보면 예배에 반주 없이 찬송을 한다는 것이 한심스럽게 보일지는 몰라도 오히려 이러한 순수함이 모든 이를 감화시키고 강렬한 공명을 일으켰다. 처음에 내가 이 예배에 참가하여 이러한 광경을 보고 어리둥절해 하고 있자, 통역을 하는 자매가 내게로 다가와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이곳은 어떠한 장식도 하지 않습니다. 시각을 어지럽히는 모든 물건을 버림으로 신자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은총을 느끼게 하고, 또 인위적으로 사람의 청각을 흐려놓는 모든 악기들을 내다 버리고 오직 입과 마음으로만 진실되게 주를 찬미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중동 지방에서

일어나 유럽에서 크게 일어났다. 그리스도 자신도 금발에 파란 눈을 가진 백인종으로, 전도사는 반드시 몸에 하얀 것에 흰 가운을 입어야 한다. 이런데 기독교가 어떻게 이국색채를 물들이고, 검은 머리에 누런 아세아 사람의 마음에 파고들 수 있겠는가? 이러한 혼돈이 그 당시 나를 어지럽혔다.

나중에 나는 독일로 망명을 하여 바바리아주의 한 조그만 마을에 살게 되었는데 캄캄한 앞날에 대한 근심으로 나는 고독과 낙담의 늪으로 빠지고 말았다. 매주 새로운 교회로 나가 예배를 드렸다. 교회당 문 앞에는 검은나무 바탕의 첩탐이 있는데, 이 첩탐이 가운데 금빛 십자가를 더욱 두드러지게 받쳐주고 있었다. 교회 문은 검은색으로 한껏 무게가 있었고, 문고리 역시 검은 색의 놋쇠였다. 교회안 정면은 십자가가 걸려 있었다. 사람들이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교회에 도착하여 큰 소리로 서로의 안부를 묻다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정숙한 분위기로 바뀌어 할 얘기가 있으면 아주 작은 소리로 소곤거리고 있었다.

10시 정각이 되면 교회안 위층에 자리잡은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의 웅장한 음악소리가 교회 안의 분위기를 휘어잡았고, 음악소리에 맞추어 하얀 것에 검은 가운을 입은 신부가 번쩍이며 광이 나는 세례대 옆에 서서 맑은 목소리로 "성부와 성자

와 성신의 이름으로 . . ."라고 기도를 시작했다. 나는 금발 벽안의 형제자매들을 둘러보았다. 비록 서로 말은 나누어 보지는 않았지만 웃음 띤 눈빛을 통하여 서로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때 나는 피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자매이며, 모두가 주님이 인도하는 양의 무리이고, 누구랄 것 없이 모두가 성령의 택하신 바가 되었음을, 또한 이 세상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하에 있고, 우리는 모두 마음과 입을 모아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이미 주님의 뜻하심이니 굳이 거기에 구애되거나 낙망할 필요도 없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함이 옳은 일인 것이다.

나는 또한 몇몇 천주교당에 가서 미사를 드렸다. 방콕의 예수 대성당, 독일의 아우트보일론 대성당(音譯) 등등. 이 성당들 모두가 화려하고 웅장하며, 벽에 가득찬 벽화들, 아주 조밀하게 조각된 古典塑雕들의 중후한 색조, 심원하면서 높이 솟아 있는 건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함과 인간의 왜소함을 잘 표현해 주고 있었다. 나는 이 교회들을 찾을 때마다 언제나 무릎꿇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면서 마음 깊히 외쳤다. --"주여,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그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신지요!" ●

< 守望中華(제109期) 중에서>



## 秋收祭

번역: 김성곤(중국어문선교회 번역소위원회 위원)

벼를 수확하는 것을 '擔稻子'라고 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음력 팔월 십오일을 전후하여 벼 수확을 시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長江 유역 일대에서는 음력 팔월 이십일을 벼의 생일로 치기도 한다. 많은 지역에서는 가을철에 지내는 제사를 농민들의 추수철에 지낸다. 햅쌀을 조상에게 바치고, 地神에게 감사하기 위하여 한바탕 놀이를 헌상한다. 華南 지역의 추수철에는 항시 '狂夫'라고 불리는 사람이 가면을 쓰고 나타난다. 湖南省의 岳陽은 추수가 끝난 후 대략 시월말에 마을 사람들이 연극을 공연하여 多産의 諸神들에게 감사하는데, 土地神은 諸神들의 대표가 된다. 이 외에도 중부와 남부 지역에서 이러한 祭典은 곧 일년중에서 연극을 공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이유가 된다. 南寧에서는 칠월부터 팔월에 이르는 동안 거행되는 祭典이 곧 秋收祭가 되는 셈인데, 이 때 이 祭典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모두 가면을 써야만 한다. 이러한 종류의 祭典을 '賽神'이라 하는데, 봄과 가을에 한 차례씩 거행한다.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狂夫'는 아마도 신의 모습을 분장한 것일 것이다. 중국 고대에 있어 사람들은 '狂夫'가 하는 말은 곧 신의 뜻이라고 믿었던 것 같다. 따라서 후세의 사람들이 연출하는 연극 역시 이러한 신앙이 연변되어 탄생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儺祭(역귀를 쫓는 제사)' 자체도 벼농사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 중국 남방의 儺祭는 연말에 거행되는데, 사람들은 독특한 복장을 하고 마을길을 다니면서 집집마다 돈이나 쌀, 술 등을 거둔다. 그리고 法術으로써 악귀를 구축하며, 儺祭에 참가한

군중들은 또한 일정한 문답으로써 각 집마다 인사를 한다.

농민들의 秋收祭의 주요 제사 대상은 土地神이다. 이 점으로부터 '社祭(地神祭)'를 살펴볼 수 있는데, 社祭는 통상 봄, 가을 두 번 거행한다. 일반적으로 봄 社祭는 仲春 元日(申日)에 거행하고, 가을 社祭는 孟冬에 거행한다. 《禮記》의 기록에 의하면 孟冬에 天子는 日月星辰께 제사를 지내는 데, 많은 숫자의 생축을 잡아서 제물을 삼아 다음해의 풍년을 구하였다 한다. 《周禮》등에서도 가을 社祭를 지내는 날에 다음해의 풍년을 점쳤다는 기록이 보인다. 日本의 한 고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社'는 본래 土地神을 뜻하는데, 후에 土地神을 섬기는 곳, 혹은 土地神을 중심으로 한 부락을 의미하는 말로 변화였다. 漢代에는 스무다섯 집이 一社가 되었다. 일반적으로 '社'는 土地神이 보호하는 부락으로서 농후한 정치색채를 띄고 있다." 江蘇省의 方河顯은 立春이 社祭를 지내는 날이다. 이날은 顯의 성내와 향촌의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신분에 맞게 헌금을 하고, 술, 닭, 돼지 등으로 제수를 삼아서 신에게 제사를 한다. 제사를 필한 다음에는 이 제수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 먹고 마신다. 이러한 습속을 '社飮'이라고 한다. 이 습속은 확실히 土地神을 신앙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각 부락은 모두 土地神에게 제사를 드린다. 이로 인하여 농민들 사이에서의 '社'는 곧 土地神에 대한 제사의식으로서 주요한 행사로 삼는다. 土地廟 안에는 통상 土地神의 신상이 마련되어 있다. 만일 독립된 廟를 갖지 못했을 경우에는 다른 廟

에서 다른 신들과 함께 두고 같이 제사한다. 土地神의 神象은 통상 나무로 혹은 진흙으로 만들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土地神之神位'라고 쓰인 神牌로 대체하였다. 여러 고대 문헌으로부터 살펴보면 '社'는 곧 신을 제사하던 聖地였으며 사람들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음을 알 수 있다. 聖地는 수목이 무성한 곳이나 흙이 높다랗게 쌓여진 곳을 택하여 정하였다. 또한 제사 의식을 거행할 때에는 신이 내리는 물체를 필요로 하는데, 이른바 '尸'는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사람이다. 가정에서 제사를 할 경우에는 손자를 택하여 '尸'를 삼는다. 사람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나무 한 그루를 택하고는 사람들은 이 나무에 신이 강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고대 문헌의 기록을 살펴보면, 每社마다 반드시 신이 내리는 나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은 제사를 지낼 때 비로소 강림하며, 원래 고정적인 형상이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후대 사람들은 신이 항상 곁에 있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을 바랐으므로 비로소 神象을 만들고자 하는 생각이 싹트게 되었으며, 동시에 신이 거처할 집을 건축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胡仙'이니 '太仙'이니하는 것들은 천조각으로 둘러싼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 촌민들은 이 나무 앞에서 기원을 한다. 이러한 풍속은 농촌에서 자주 볼 수 있다. 이러한 것은 社 및 기타 건축물과 상관 없이 나무는 그 자체가 신이 머무르는 곳이라는, 가장 오래된 형태의 신앙인 것이다. 웅대한 廟를 건축하고 신앙을 안치하는 것은 새롭게 발전된 형태이다. 그러나 신앙적인 각도에서 보자면 이것은 일종의 쇠퇴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전술한 祈雨에 관한 설명 가운데서도 말했지만 龍王廟나 龍王象이 없이도 사람들은 성공적으로 祈雨儀式을 거행할 수 있었다. 神象을 제사의 중심으로 삼는 것은 후대에 비로소 생겨난 새로운 형태의 의식인 것이다.

만일 농민들의 신앙 중심이 '社'이며, 거

행하는 제전은 곧 土地神을 제사하는 의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제사하는 土地神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학자들은 土地神은 곧 토지 혹은 地力の 신격화라고 생각한다. 어떤 학자는 土地神은 조상신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모두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농민들로 말하자면 가을에 지내는 '社'가 곧 秋收祭인 셈이다. 즉, 각 지방의 秋收祭는 모두가 土地神을 중심으로 행해지는 행사인 것이다. 秋收祭 의식 내용은 아주 복잡하다. 여기서는 '初穗供饗(첫 이삭을 제물로 바침)'에 대하여만 간단히 알아 본다. 첫 이삭을 바치는 것은 우리나라 각 지역 모두 존재하는 습속으로서 이 첫 이삭을 土地神과 조상신에게 바친다. 그러나 湖南省 寧遠에서는 첫 이삭을 개에게 준다. 이러한 습속은 다음과 같은 故事에 근거한다. 옛날 홍수로 인하여 사람들이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자, 하늘의 하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동물로 하여금 농작물의 종자를 가지고서 인간 세계로 가게 하였다. 후에 개가 使者가 되어 전신에 농작물의 종자를 매어 달고는 인간 세계에 이르렀다. 그런데 개가 헤엄쳐 오는 동안 종자들이 모두 물에 떠내려 가고 단지 꼬리에 붙어 있던 종자만이 남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 종자를 통해서 식물을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사람들은 벼가 논에서 불쑥 솟아 오른 모습이 개꼬리와 같다고 믿는데 이것 역시 이러한 고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상과 같은 고사는 四川으로부터 江蘇, 廣東省 일대에 이르기까지 전해내려오는 이야기이다. 즉 사람들은 개는 범씨를 제공해 준 자이므로 첫 이삭을 바친다는 것이다. ●

(『中國民俗學』 중에서)

## 중국의 식생활

“吃飯了嗎(츠판러마)?(식사는 하셨습니까?)”는 중국인이 하는 아침인사이다. 이것을 해설해서, 중국인은 오랜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등 잘 아는 듯한 얼굴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만의 작가 구영한(邱永漢)에 의하면, 이는 잘못된 해석이다. 그의 이 말은 무엇보다 중국인이 음식을 좋아하고, 먹는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으로, 그렇지 않았다면 세계 제1의 음식문화가 태어날 수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다. 아무래도 그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다.

우선 '개·고양이·쥐는 말할 필요없이 유충까지 네 발 가진 것은 책상을 제외하고 모두 먹는다'는 중국인의 음식에 대한 보통이 넘는 관심과 집착을 떠올리게 된다. 이것은 옛날 중국의 음식이 '不老長壽'의 사상과 연결되어 발전해 왔기 때문에 음식은 사람에게 양분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명확한 인식하에 산·들·하늘·바다의 모든 생물을 음식의 대상으로, 불로장수를 계속 추구해온 것에서 출발한다. 현재, 약 600종이라고 하는 중국의 광범위한 음식 재료는 세계 어디서도 그 예를 찾아볼 수 없는데, 이는 몇 천 년 이상에 걸친 탐구의 결과가 남겨진 것이다.

### 1. 황하유역(북경요리)

북경요리로 대표되는 북방계의 요리로, 그 밖에 산둥·하남요리가 포함된다. 추운 토지의 성질, 자연에 기름기를 풍부하게 사용한 칼로리 높은 음식이 선호되며, 맛도 남방계 음식에 비해 농후한 요리가 많다. 쌀보다 밀가루 생산이 많기 때문에 면, 만두 등의 분식이 발달하였으며, 북경풍 레스

토랑에서는 북경요리라면 밥이 나오기도 하지만, 면류나 만두 등이 나오는 경우도 많다.

또한 생선보다도 육류요리가 발달하여 돼지고기, 오리고기 등이 흔히 사용된다. 민물고기도 자주 사용되지만, 워니워니 해도 북경요리를 대표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오리고기 요리인 北京烤鴨(베이징카오야; 구운오리 요리)일 것이다.

북경요리에는 튀기거나 볶은 유명한 요리가 많다. 대중적인 것으로는, 원하는 육류나 생선과 야채를 테이블에서 끓이는 火鍋(후어꾸어; 전골), 양파를 넣고 볶은 떡 蔥油餅(충요우뽕), 조각낸 소고기와 피망을 볶은 青椒牛肉絲(칭수니우러오쓰) 등이 있는데, 오늘날 北京菜(베이징차이)라고 불리우는 요리의 대부분은 역대의 궁정에서 유래된 것이다.

### 2. 양자강 유역(상해요리)

상해를 필두로 南京(난징)·揚州(양저우)·無錫(우시)·杭州(항저우)·寧波(닝보) 등 유명한 음식이 줄줄이 있는 이 지역은 하천·호수·바다의 혜택을 받아 재료가 풍부하기 때문에 요리 또한 다채롭다. 蘇州(쑤저우)·杭州(항저우)요리는 민물고기를 즐겨 사용하며, 특히 소주요리에서는 燉(둔), 燜(먼; 약한 불로 끓임), 煨(웨이; 약한 불에 천천히 끓임) 등의 끓이는 요리가 맛있다. 바다에 면한 寧波(닝보)에서는 생선·새우·게 요리에 특색이 있는데, 게라고 하면 맛이 좋기로는 上海가 유명하다. 이것은 양자강 하류에 생식하는 淡水產(판수에이찬) 계로, 세계의 식도락들 사이에서 인기있는 맛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언제라도

먹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9월말경부터 1월 중순의 시기에 한한다. 만약 이 시기에 상해를 방문한다면 꼭 맛보기 바란다.

### 3. 서부대분지(사천요리)

成都(청두)·重慶(중칭) 등의 도시를 중심으로 발달한 이 지방의 요리는 四川料理라고 불리며, 그 독특한 매운맛으로 인기가 있다. 옛날부터 중국의 곡창지대로 유명한 四川분지는 계절의 산물이 풍성해서, 해산물은 없지만 사냥물이나 소채류, 민물고기를 주재료로 많은 음식을 만들어 내었다.

우리에게도 친숙한 麻婆豆腐(마퍼떠오푸), 두부와 돼지고기의 된장볶음 家常豆腐(지아창떠오푸)·돼지고기의 안심살을 고추 맛을 넣어 볶음 回鍋肉(후이구어러오) 등은 모두 四川에서 나온 음식이다. 그 밖에 닭을 고추와 참깨로 맛을 낸 捧捧雞(뽕뽕지) 등도 대중적인데, 어느 것이나 고추 등의 향신료를 듬뿍 사용해서 불에 잘 익히는 조리법에 특색이 있다.

그 특색은 분지 안이 습도가 높고, 여름에는 덥고 또한 풍토병이 많은 이유에서 생겼다고 한다.

### 4. 남부연안지방(광둥요리)

세계에서 유명한 중국요리 중에서도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이 廣東料理이며, 전세계의 도시에서 먹을 수 있는 중국요리의 대부분이 또한 이 광둥요리이다. 재료의 신선함이 가장 자랑인 광둥요리는 본고장 廣州(광저우)에서 먹는 데 한한다.

정식요리인 상어 지느러미 수프인 魚翅(위츠)·각종 비둘기 요리 乳鴿(러오허)·구운 돼지고기 叉燒(차사오)·야채와 소고기를 볶아서 끓이는 時蔬牛肉(스수리우러오) 등은 반드시 시식해보기 바란다. 식도락가에 의하면, 광둥요리의 맛의 좋고 나쁨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 음식점의 집오리 구이를 먹어보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다. 이것도 북경요리와 마찬가지로 혼자서 한

마리는 너무 많으니까, 기회가 있으면 먹어보고 싶은 것의 하나로 생각해두자.

또한 광둥요리에서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이 點心(디엔신: 간식)이다. 현재는 중국전 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點心도 원래는 광둥요리의 한 파(派)로 광둥인의 '飲茶(인차)' 습관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은 중국식 스낵으로 만두·각종 면 종류·죽 등이 포함되며 고기경단·떡 등 폭넓은 레퍼토리를 갖고 있다. 고기만두 등도 물론 여기에 포함된다. 호텔 등에서도 아침식사 등에 이들 點心을 먹을 수 있다.

'點心(디엔신)'을 해석하면, 문자 그대로 '마음에 닿는다'라는 의미이다. 상대방의 마음으로 통하는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은 우선 위(胃)의 충족부터, 즉 음식을 대접한다고 하는 뜻으로 궁극적인 발상이어서 재미 있다. 가지수가 많고 값도 싸서 먹기 쉬운 點心은 여행의 가장 반가운 음식이다. '點心'으로 점심을 먹으면 대단한 만족감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광둥요리는 대체로 보기보다는 맛이 느끼하지 않고, 기름을 사용해도 산뜻한 맛의 음식이 많다. 또 무엇을 먹어도 그다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없다는 점이 무엇보다도 기쁘다. 탕수육·팔보채·부용계 등 한 국에서 먹어본 요리도 많기 때문에 廣州에서는 음식으로 곤란을 겪는 일은 거의 없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 밖에 남방 계통에서 유명한 것에는 福建(푸지엔), 汕頭(산터오), 潮州(후저우), 客家(커지아)요리 등이 있다. ●

(『세계를 간다』-중국편 중에서)



# 한자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 아담과 하와의 결혼에 관한 漢字

西, 𠂔, 𠂔

서녘 · 서

하와가 창조되기 전, 아담 한[一] 사람[人]이 에덴 동산[口]에 있었다. 고대 형태인 𠂔에서 一은 한 사람, 田은 에덴 동산이다. 히브리인에게는 에덴 동산이 동(東)쪽에 있지만, 중국인에게는 서(西)쪽이다.

一 + 人 + 口 = 西  
첫째 사람 동산 서쪽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창2:8).

要, 𠂔, 𠂔

필요 · 요

창조의 제 6일 저녁, 태양이 서(西)쪽에 있을 때,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인 여자(女子)가 필요하다[要]. 옛날 글자, 𠂔에는 에덴동산(田) 위에 한 사람(一)을 두신 하나님의 손(扌)과 밑부분에 여자(女)가 있다. 다른 고대 글자에는 에덴 동산이 생략되고 두 사람의 의미를 강조했다(𠂔 𠂔).

一 + 人 + 口 = 西 + 女 = 要  
첫째 사람 동산 서쪽 여자 필요하다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창2:18).

肉, 𠂔, 𠂔

몸 · 육

하나님께서 아담 몸[肉] 안[内]에 손을 넣으셔서[入] 갈빗대를 취하여 또 한 사람[人]인 여자를 만드셨다.

$\square + \text{入} + \text{人} = \text{肉}$   
 몸                      들어가다                      사람                      몸, 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창2:20).

内子, 内子

내자 : 아내

아내인 여자(女子)는 남자의 몸[肉] 안[内]에서 취함을 받았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고전11:8).

福, 福, 福

복 · 복

하나님[示]께서 첫[一]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田]에 두사 복(福)을 주셨다. 옛날 형태에는 이

분명하게 집[宀]이나 지붕[人] 모양이었다. 또 다른 형태인 福, 福에서 보면, 口이 두 사람을 뜻하는 自, 自이었다.

$\text{示} + \text{一} + \text{口} + \text{田} = \text{福}$   
 하나님                      첫째                      사람                      동산                      복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창1:28).

元, 元, 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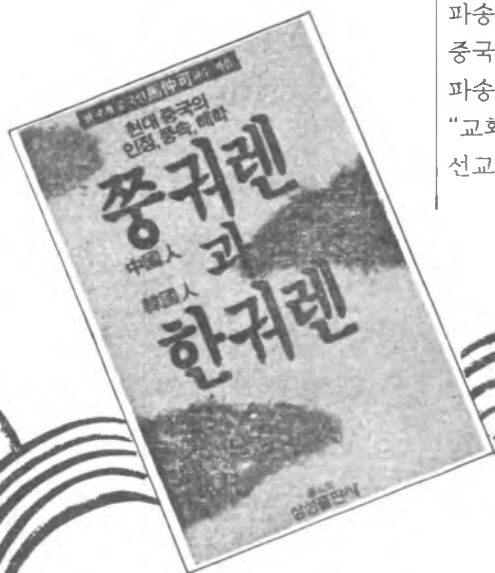
시작 · 원

아담과 하와 두[二] 사람[人]으로 인해 인류가 시작되었다[元].

$\text{二} + \text{人} = \text{元}$   
 두                      사람                      시작, 근원

# 「만만디, 만만디」 「쭉궈렌과 한궈렌」 「중공기행」

·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 제공



만만디, 만만디

임어당 지음, 덕성문화사(4,000원)

“우리가 중국인들을 다시 검토해 보고 그들의 민족적 특성을 가려낸다면 아마도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적할 수가 있을 것이다.

(1)온건함, (2)소박함, (3)자연애(自然愛), (4)인내력, (5)무관심, (6)냉담함, (7)사기성, (8)다산(多産), (9)근면, (10)검소, (11)가정애(家庭愛), (12)평화주의, (13)만족감, (14) 보수성, (15)유머, (16)호색(好色) 등이다.”

위 글은 임어당이 쓰신 『만만디, 만만디』의 내용 중의 일부이다. 이 책은 중국인의 성격, 정신, 사회적·정치적 생활, 문학과 예술, 생활과 종교 등 중국인이 본 중국인의 의식구조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을 엮은이도 말하고 있듯이 한국 사람만큼 성격이 급한 민족도 없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우리 나라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느긋하고 여유있는 민족이다. 중국인들은 무슨 일이든지 만만디! 만만디!(천천히 천천히) 하며,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급한 일이라곤 없을 듯한 표정으로 여유를 부린다고 한다.

중국선교를 하는 분들과 앞으로 중국선교를 하려고 비전을 가진 분들은 선교지에 가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신다면 중국인들을 알고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얻게 될 것이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나 단체에서도 이런 책들을 통해 중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된다면 그곳에 파송된 선교사에게 “몇 명을 전도했느냐?”, “교회를 지었느냐?” 등등 선교보고를 재촉하여 선교사를 시험들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 중국인과 한국인(中國人和韓國人)/

馬仲可 著, 삼성출판사(4,600원)

“한 나라의 풍토와 인정은 사실 그 나라의 민족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 세상에 아마도 중국 문화처럼 특색있고 다채다양한 문화도 적을 것이다. 거기에서 중국 문화는 끈질기게 연속된다. 고대의 바빌론 문화·이집트 문화·인도 문화·그리스 문화·로마 문화 등은 역사의 흐름 속에서 유실되었거나 혹 변형되었으며 심지어 단층이 생겨 광택을 잃었다. 그러나 중국문화는 강인한 생명력으로 끊임없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위 글은 <조선일보>의 칼럼니스트인 馬仲可씨가 『중국인과 한국인』의 책을 펴내면서 말한 내용이다. 마중가씨는 한림대학의 객원교수로 재직중인 한국계 중국인이다.

이 책은 저자가 알고 있는 지식과 감정, 그리고 겪었던 체험을 중심으로 한 서술로 엮여졌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독자에게 직접 호소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저자는 경쾌한 필치로 우스개를 섞어가면서 항상 한국인의 관심과 감정을 혹은 투입하고 혹은 대비(對比)하면서 기술하고 있다.

이 책 후기를 보면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잘 알 수 없고 외국 사람은 외국 사람이기 때문에 중국을 잘 모른다.”라는 말이 실려 있다. 그만큼 중국은 다양하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 민족성, 풍토, 인정 등을 터득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이미 중국에서 살았던 사람조차도 중국을 잘 모르는데 문화와 언어가 다른 우리가 그들을 잘 알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좋은 길잡이가 될 것이며 특히 중국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 보아야 할 책이다.

## 중공기행/

현웅 저, 시사영어사(3,000원)

이 책은 국제적 칼럼니스트인 피터 현(현웅)이 일곱 차례 중국을 방문했을 때의 경험을 토대로 쓴 책이다. 그는 이 책을 4장으로 나누어 쓰고 있다. 제1장에서는 변해가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대해서 썼고, 제2장에서는 상해, 북경, 산둥성, 만리장성 등 중국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제3장에서는 송화강의 한인촌, 연변, 용정, 백두산 등 중국 속의 한국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제4장에서는 중국 학생들의 생활, 해외 유학, 여가생활, 결혼 문제 등 중국의 현대화의 물결에 대해 쓰고 있다.

이 책은 1987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1988년에 3판이 발행되었기에 이 책을 읽고 나서 지금의 중국을 말하기에는 조금 어렵다. 왜냐하면 이 책의 지은이도 이미 말했듯이 중국은 급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은 한국인의 눈을 통해 자유의 물결로 몸부림치고 있는 중국의 모습과 그 내막, 중국 각지의 한인촌사회 등을 자세히 그려 볼 수 있어 그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중국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 특히 중국의 조선족 선교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큰 수확 大收获

主耶穌來到  
迦百農城，  
百姓很留意地  
听他的教導。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성에 오시자 백성들이 귀를 기울여 그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有一次，彼得和他的朋友捕了一整夜的魚，但一條魚都沒有捕到。



한번은 베드로와 그의 친구가 밤새도록 고기를 낚았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主耶穌上到彼得的船向百姓講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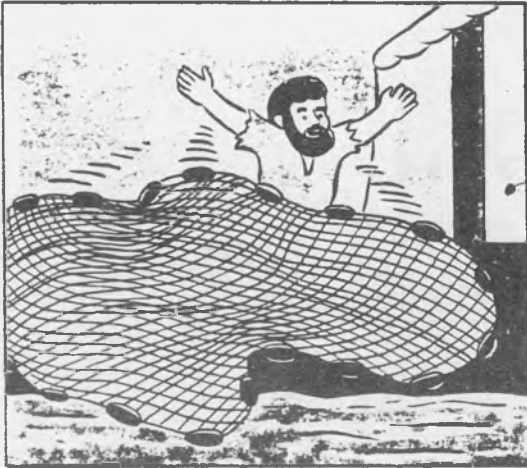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彼得照着主耶穌的話下網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바다에) 던졌습니다.



“鱼太多，网都被撑破了。”  
“快来帮我们啊！”



“船都要沉了！”  
“快靠岸吧！”



彼得亲眼看见主耶稣的大能，深感自己不配。  
“主啊！离开我吧，我是个罪人。”



“来跟从我，我要使你得人如得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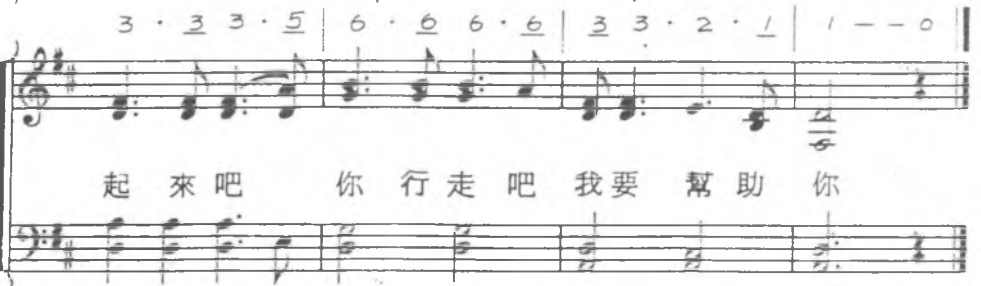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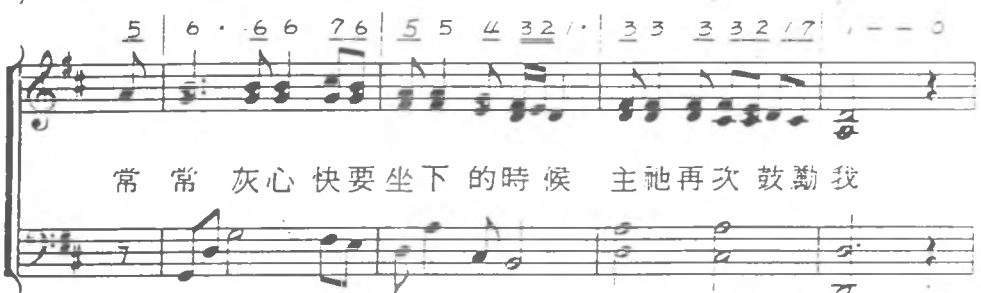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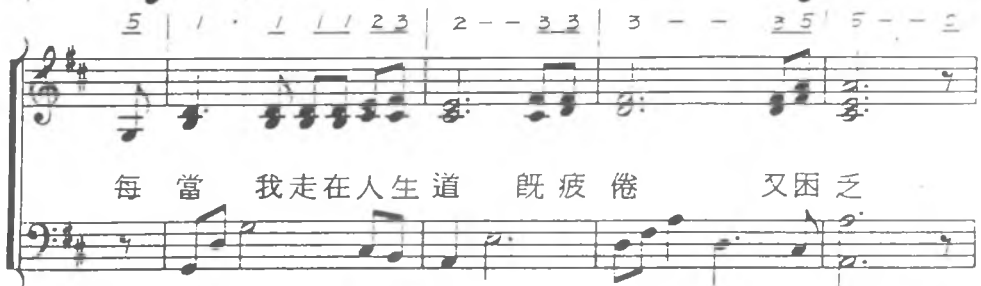


于是，他们撒下鱼网跟随他去了。

그리하여 그들은 그물을 버리고 그(예수님)를 따라 갔습니다.

중국어로 찬양을!

# 起來行走吧！



## 우리말 가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 최근 중국 동향

(중국어문선교회 연구부제공)

## 중 고

\* 가정교회가 조사당한 후 봉쇄되었다.

雲南省 西南面の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 2개소가 2월말 공안국에 의해 조사당해 봉쇄되었다. 공안국에서는 이 두 가정교회가 위치한 昆明市 西南面 七慶지역 교회지도자에게 "이곳에는 미등록교회가 필요없다. 왜냐하면 이미 공개적인 삼자교회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통보하였다.

이번 당국의 가정교회 봉쇄는 이 지역 기독교활동 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감시와 규제라고 말할 수 있다. 금년초 공안국은 한 여전도사의 타지역 집회인도를 금지하고, 그 여전도사의 종교활동이 불법적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이것은 이 여전도사 마을지역 신도 중 약 3분의 1에 달하는 이들이 그녀의 가정교회에 참석한다는 정보를 얻었기 때문이었다. 그 밖에 운남성의 19살 된 한 신도도 작년말 공안국에 의해 구속되었다가 3월중 석방된 바 있다

("News Network

International" 92.3.27)

\* 사이비교에서 반 년 동안 시체를 지키고 있는데 정부는 모르는 체했다.

대륙 公安部 내부자료의 일부에서 드러난 바에 의하면, 최근 河南省 舞陽縣 吳城鎮의 한 사이비종교 집단에서 시끄러운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다. 사연은 다음과 같다. 黃建山이라는 그 마을의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빙자하여 그 마을에 비밀스러운 사이비교를 조직하였다고 한다. 黃建山은 강간한 교도 중 吳愛玲이란 소녀를 「神婦」로 삼았으나 뒤흔 다시 그의 남자 친구와 모의하여 黃을 살해하였다.

黃의 조카가 시체를 발견하여 집으로 가져온 후, 자기 스스로 교주라 칭하고 숙부를 대신하여 직위를 계승한 것이라고 발표하고는 신도들로 시체를 지키게 하였다. 이 기간 그는 여러 명의 여교도를 유혹하여 간음까지 자행하였는데도 이 지역 政府당국에서는 뜻밖에도 불문에 부쳤다. 시체를 지키는 촌극이 반년에 이르도록 계속된 뒤에야 결국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하고 사이비교의 조직의 관련자 전원

을 죄로 다스리게 되었다.

(《明報》 92.3.18)

\* 浙江省 臺州지역의 교회가 부흥하다.

橋의 보도에 의하면 절강성 대주지역 교회가 매우 부흥하고 있다고 한다. 이 지역의 이미 등록된 신도숫자는 14만 명이며 집회장소는 300여 개가 있다. 신도분포는 매우 불균형적인데, 그 중 溫嶺은 신도분포가 절강성에서 가장 집중된 지역이다. 전체 縣에는 이미 등록된 집회장소가 약 85개이며 신도는 약 6만 명 정도이다. 그 외에 黃岩, 椒江, 玉環 등지에 각각 2만 명 정도의 신도가 있으며 臨海에는 만 명의 신도가 있다.

天臺, 仙居, 三門 등지는 신도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도합 만 명에 이른다.

臺州지역 교회의 지도자는 매우 부족한 형편인데 전지역에 겨우 목사가 3명, 교사 9명, 전도사 20여 명, 장로가 40여 명만이 있을 뿐이다. 그들은 3개市와 5개 縣에 흩어져 도처에서 사역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재의 형편이나 능력으로 많은 신도들의 영적인 충족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회의 중요한 행사 때에는 자원 봉사자들이 와서 도와주어야만 한다고 한다.

(《橋》(第五十二期) 92.4)

\* 빌리 그레함 목사와 朱鎔基가 만난다.

올해 3월말 中國의 副總理 朱鎔基는 美國 기독교 복음파의 영수이며 부총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와 만나 담소했다. 빌리 그레함 목사는 중국이 외국 우호협회에 보낸 초청장에 대한 답례차 중국을 방문한 것이다. 회담중 朱鎔基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에 대해 언급하였고 경제 건설과 함께 적극적인 정신문명의 건설을 추진할 계획임을 피력하였다. 또한 아울러 이를 위해 타국의 문화와 문명의 장점을 적극 수용할 것임을 덧붙였다. 이에 답해 빌리 그레함 목사는 중국의 최근 급속한 발전에 대한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文匯報》92.4.1)

\* 중국에서 국제종교연구 토론회를 개최하다.

13개국 40여 명의 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서 종교연구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중국에서 유사한 종교의 연구토론회가 개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연구토론회의 주제는 서방종교와 중국문화의 관계였는데 종교의 기본이론, 종교의 歷史, 비교종교학, 종교학적 哲學, 윤리, 사회와 인류학 등등의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토론되었다.

(“China Daily” 92.4.14)

\* 광주시 공안국에서 3천 권의 성경책을 몰수하다.

한 미국인 선교사가 발각되어 대륙 公安局이 廣州市를 1차로 집중 수사를 하던 중 3천 권의 성경책을 찾아내었다. 이름이 밝혀지기를 꺼린 한 선교사의 주택이 30여 명의 공안원들에 의해 수색당했는데, 3천 권의 성경과 소유품이 압수되었다. 집중수사 후 공안원 한 명이 선교사의 방에 남아 4시간 동안 심문하였으나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자 석방해 주었다.

(《星島日報》92.4.21)

\* 「新能力主教會」가 河南지역에서 금지당했다.

《天風》(復總 113號)의 보도에 의하면 기독교라는 간판을 건 「新能力主教會」라는 새로운 조직이 河南省내의 鄉縣에서 작년부터 전파되었다고 한다. 이 조직은 鄉縣內에서 서적과 녹음 Tape를 배포하면서 비밀리에 신도를 늘리다 작년말 鄉縣 政府 당국에 의해 금지되었는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鄉縣종교국과 기독교회가 몽매한 신도들의 가입을 묵과해 왔다는 후문이다.

(《天風》(復總 113號) 92.5)

\* 華西지역의 복음이 번창하고 있다.

內地신도에게서 온 한 통의 편지에 의하면 화서지역의 복음과 교회가 매우 부흥하고 있다고 한다. 신도수가 매우 크게 증가, 집회시 거의 앓을 자리가 없을 정도라 한다. 일차 세례집회 때에는 세례를 받았다고 신청한 사람이 6~7백 명에 달했으며 이러한 빠른 성장 속도에

대해 해외 기독교인들은 매우 놀라워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다. 그러나 크리스천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반해 성경과 신앙서적은 매우 부족한 상태이며 신도들의 영성훈련 역시 당면한 문제이다. 이 지체들의 필요를 위해 독자들의 많은 기도를 바란다. 그들에게 풍족한 영의 양식이 공급되며 이 일대 교회에 더욱 많은 일꾼이 배출되어 많은 신도들이 양육받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莫忘神州》92.6)

\* 중국내 선교사를 체포, 석방하였다.

중국교회 지도자인 謝模善이 4월말~5월초의 기간중 체포당했다. 謝는 광주에서 상해로 돌아오는 도중 체포되었는데 정부 당국은 5월 5일이 되어서야 그의 가족에게 체포사실을 통고하였다. 謝는 중국교회의 유명한 가정교회 지도자로 유력한 저술 활동을 통해 중국교회에 큰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그 밖에 華中가정교회 지도자인 宋 형제도 발각당해 8년 동안 구금되었다가 5월에 석방된 바 있는데 그 후에도 여전히 열심으로 교회 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다.

(《莫忘神州》92.6)

\* 농촌청년들이 도시집회에 참석하기 어렵다.

대륙에서 일하고 있는 한 자매에 의하면 그녀는 華東일대 지방에서 일하고 있는데 많은 농촌의 청년들이 도시로 몰려가 직업을 찾고 있다고 한다. 그 중에는 신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 청년신도들이 도시에 도착한 후 적합한 집회장소를 찾지 못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도시로 가서 교회를 찾지 못하는 농촌신도들은 신앙을 잊어버리기 쉽기에 이러한 상황은 큰 위기로 인식된다. 앞으로도 많은 청년신도들이 도시로 직업을 찾아 흘러들어올 것이다. 우리들은 이 청년 신도들이 적당한 집회장소를 찾아 그곳에서 양육받으며 정상적인 교회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이다.

(《莫忘神州》 1992. 6.)

**\* 范學淹 주교, 王明道 사모  
이따라 별세하다.**

河北省 寶定市の 范學淹 주교는 1992년 4월 13일 서거하였는데 향년 85세인 그는 폐렴으로 죽었다고 보도하였다. 범 주교는 1951년 바티칸교회에서 주교로 임명되었는데 그는 로마교황청이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공개적으로 세운 몇몇 주교의 한 사람이다.

왕명도선생의 미망인 劉景文 여사 역시 92년 4월 18일, 주님의 품에 안겼다. 왕 사모는 4월 17일 새벽 4시 발병하였는데 처음에는 감기로 인한 고열이 폐렴을 일으켜 병원에서 치료하다 비로소 맹장염이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병세는 이미 상당히 심각하였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왕 사모는 과거 몇 개월 동안도 불시에 복통현상이 있었다 하는데, 4월초에는 복부에 종기가 발견되었으나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서 입원한 다음날 아침 5시에 별세했

다. 발병으로 별세까지 단지 13시간이었다. 왕 사모는 1928년 왕명도 선생과 결혼하여 후에는 줄곧 왕명도 선생의 조수로서 왕 선생과 함께 봉사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고생하였다. 왕 선생 별세 후(91.7.28) 그녀는 여전히 집회중 왕 선생의 강의를 읽었으며 줄곧 별세하기까지 계속했다.

(莫忘神州 92. 5)

**\* 中國신도들에게 교재공급이  
필요하다.**

모두 70여 명의 교회지도자들이 훈련반에 참가하였으며 그 가운데는 서로 다른 지역의 교목과 복음사역자들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였으며 나이는 20에서 30세 사이였다. 모든 과정 가운데 내지신도의 열심과 적극성은 牧長들로 격려를 얻게 했다.

현단계에서 신도들은 교재가 매우 필요하며 특별히 시리즈로 된 비교적 완전한 제자훈련과정의 교재가 필요한데, 그 가운데는 기초 성경읽기, 영적성장, 봉사방법과 개인담화 등의 과정이 그들에게 절박한 것이다. 사실상 해외 형제자매들은 모두 영적서적이거나 교재가 많이 국내의 지체들에게 공급되길 바라지만 서적은 휴대하고 입국하기가 쉽지 않아 공급량에 영향을 준다.

이 외에도 소식을 들으니 중국세관원은 여행객이 통관할 때 특히 종교서적을 압류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목적은 책을 휴대한 자의 연락지역을 목격하여 더 많은 자료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해외 지체들

이 책을 지니고 입국할 때 반드시 더욱 조심해야 한다.

(莫忘神州 92. 5)

**\* 중국방송선교 확장**

중국인 복음화를 위한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해온 미국 캘리포니아주 알함브라의 카이로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KCS)는 중국에 직접 라디오 방송을 송신하는 지금까지의 활동을 보다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복음신문 92. 7. 12)

**\* 정부의 교회통제 강화지적**

중국교회협의회(CCC) 회장인 K.H. 텅 주교는 지난달 19일 뉴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몇 년 간 중국교회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강화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1989년 이래로 ‘교회를 이용해 적극적인 외국의 영향력이 흘러들어오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보다 강력한 수단이 필요함을 주장하는 문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복음신문 92. 7. 19)

**\* 한·중국교회 협력증대 구체화**

중국교회대표단 9명이 49년 중국정부수립 이래 처음으로 한국을 공식방문하기 위해 8월 5일 오후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중국교회는 지난 79년 성탄에 상해에서 첫 교회를 연 이후 91년 전국적으로 6천여 교회와 3만여 공소로 늘어나 문화혁명 이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조선족 출신 목회자는 10명 내외인 것

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일보 92.8.6)

#### \* 中國도 終末論 극성

終末論을 설교하는 사이비 종교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서도 극성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

중국 遼寧省 구산마을에서는 1백여 명의 사이비 종교 신자들이 가짜 선교사로 부터 「심판의 날」에 대비하라는 말을 듣고 집단자살을 계획했으나 당국의 저지로 무산됐다.

人民公安報는 6일 이 광신도들이 지난 7월 17일 한자리에 모여 저녁식사를 함께한 후 모두 절벽에서 뛰어내려 동반자살을 할 계획이었으나 경찰이 이를 파악하고 만류해 참변은 간신히 넘겼다고.

이들은 「심판의 날」에 대비, 재산을 헐값에 팔고 가족들이 키우던 돼지와 羊도 도살하고 소유물도 모두 남에게 주어 버렸다고 한다.

(국민일보 92.8.8.

조선일보 92.8.9)

\* 세계종말론이 한국에서 왕성하게 전파됨.

일본의 신문보도에 의하면 최근 한국 기독교도 사이에 1992년 10월 28일 심야 영시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말이 무성하게 퍼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일대 공황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종말론」은 성경 중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에 의하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강림하여 14만 명의 양민들을 정선하여 천국으로 데리고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 최후의 날이 곧 금년 10월 28일로 정해졌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에 있어 매우 큰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8월 초 일부 세상종말론에 미혹되어 피해를 입은 신도들의 가족들에 의하여 「피해자대책협의회」가 결성되어, 속임을 당해 가출하여 버린 아이들을 찾고 있으며, 정부가 부질없이 신앙의 자유만을 제창하고 있지 말고 조속히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中國:北京晚報 92.8.14)

#### \* 설부른 중국선교 자제해야

중국을 지난 8월 24일 한국과 수교를 했다. 수교와 더불어 한국교회는 중국선교에 들떠 있다. 들떠 있는 만큼 93년도 중국선교 열기는 대단하게 전개될 듯하다.

그러나 중국선교는 역사적으로 겪어온 중국정부의 종교정책과 함께 중국의 개신교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선교는 이미 중국정부로부터 선교중지 요청을 요구당한 경험이 있는 바, 이제는 과연 전쟁의 단계를 넘어선 심사숙고된 선교전략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중국의 종교상황, 삼자원칙, 지하교회에 대한 연구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복음신문 92.8.13. 국민일보 92.8.25)

#### \* 북경조선족교회 첫 기념예배

8월 30일, 중국의 수도 북경시 서쪽의 한 교회에서는 조선

족 동포들끼리 모여 韓-中 수교를 축하하는 기념예배를 열었다.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북경시 西成區의 缸瓦市지역 기독교회단의 제3부예배를 진행해온 지 4년째이다. 이 교회의 이날 예배가 「한중수교 축하 기념예배」가 된 것은 이날이 지난 24일의 韓中수교 발표 이후의 첫주일이었기 때문.

(조선일보 92.9.1)

#### \* 중국 유난신학교 첫 졸업생 1백여 명 배출

1989년 설립된 중국의 유난신학교는 지난 7월, 첫 졸업생을 배출하는 기념행사를 가졌다. 2년제 학부를 졸업한 1백20여 명의 졸업생들은 곧바로 자신의 출신지에서 목회활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졸업생 바이 유화가 전국적인 기독교잡지 티안팡 5월호에 기고한 글에서 밝혔다.

(크리스찬신문 92.9.5. 복음신문 92.9.13. 기독교연합신문 92.9.27)

#### \* 중국기독교잡지 「공산당 정책과 어긋나」주장

중국의 전국적인 기독교 잡지인 「티안팡」은 지난 6월호에서 지양시 지역의 일부 관료들이 기독교에 대한 무지와 그에 따른 잘못된 정책을 집행하는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차별은 종교인과의 협력을 가로막는다」라는 제목으로 이 잡지는 지양시의 지역 관리들이 기독교인들은 미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포함된 가정은 모범가정으로 선정될 수 없

다는 차별적인 정책을 실시하는 것에 대해 지방시의 기독교인들이 공동으로 작성 서명한 항의문을 실었다.

(크리스찬신문 92.8.29, 복음신문 92.9.6)

#### \* 증교학부 종합대학 중국 상해에 설립

韓中수교 이후 처음으로 종교학부가 포함된 종합대학이 한국인들에 의해 임시정부가 있던 중국 상해시에 설립돼 오는 10월 10일 정식으로 개교한다.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영리 교육재단인 실크로드재단(이사장 조두하 목사)과 중국 상해시 교육부는 지난 1일 상해국제학

사에서 실크로드대학 설립과 그 운영에 따른 협정서를 체결했다.

또 상해시 교육부 당국과 이 대학 안에 교화설립을 합의하고 上海臨政교회라 명칭을 정하고 상해실크로드대학에서 대학교회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92.9.21)

## 한중관계

### \* 中國진출 中企 고전

한국 중소기업들의 중국투자리시가 일고 있지만 투자한 업체 대부분이 부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거나 또는 사전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출함으로써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92.8.10)

### \* 中國天津공단 내년초 착공

우리 나라의 첫 해외공단이 될 中國 天津공단 개발사업이 내년초에는 착공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92.8.19)

### \* 韓中역사적 修交

韓中 양국의 수교에 관한 공동성명이 24일 서명·발효됨으로써 日本 強占에 의해 주권을 잃은 이후 80여 년 만에 양국간 공식외교관계가 회복됐다.

(중앙일보 92.8.24, 조선일보 92.8.25)

### \* 台灣대사관 門닫고 「울분」 토로도

韓中수교가 이뤄진 24일 서울 明洞2街 中華民國대사관은 대사관정문을 굳게 걸어잠근 채 대

만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한 외부인들의 출입을 통제했다.

대사관 옆에 있는 한성화교학교(국민학교)는 오전 9시에 수업이 정상적으로 시작됐으나 교무실에는 학부모와 교사들이 삼삼오오 모여 韓中수교가 미칠 영향 등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으며 일부 교사들은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중앙일보 92.8.24)

### \* 성난 台灣 무역報復 착수

韓中수교와 관련, 台灣국민들의 분노가 시위, 한국상품 불매운동 등으로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台灣측은 22일 對韓단교선언에 이어 무역보복조치에 착수했다. (국민일보 92.8.24)

### \* 中國교포 출입국절차 불변

법무부는 8월 24일 중국과의 정식 국교관계 수립에도 불구하고, 중국교포들의 출입국 절차와 국내거주 화교들의 법적 지위 등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92.8.25)

### \* 韓-中 과기협력 본궤도 올

랐다

韓國과 中國이 24일 국교를 수립함에 따라 앞으로 양국간 과학기술협력협정체결, 공동연구추진, 과학관과견 등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일보 92.8.24)

### \* 中國內 조선족자치주 지원

정부는 韓中수교를 계기로 중국내 韓人(조선족)에게 母國역사를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한국어 교육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中國 延邊조선족자치주와 교사교환, 교과서 제작 배포, 학교설립지원 등 다각적인 교육·문화교류를 추진중이다.

(국민일보 92.8.24)

### \* 中國교포 國籍되찾기 러시

韓·中수교를 계기로 대부분 중국 또는 북한국적을 가진 중국교포들 사이에 한국국적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조국 귀환을 희망하는 교포도 다수 포함돼 있어 정부가 국적회복 및 조국정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국민일보 92.8.26)

#### \* 中國건설市場을 노려라

韓中수교를 계기로 중국이 거대한 건설시장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건설업체들은 중국의 경제개방·개혁이 가속화되면서 중국이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를 늘리고 국영기업의 노후설비 대체에 적극 나서고 있어 80년대의 中東시장을 능가하는 건설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 중국의 대형 건설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중이다. (국민일보 92.8.26, 한국일보 92.8.28)

#### \* “中國교두보 확보” . . . 投資진출 러시

韓中수교 이후 우리 기업들의

중국진출 열기가 높다. 각 기업들마다 새롭게 펼쳐진 거대시장 중국에 교두보를 마련키 위해 현지를 찾아 유망업종, 유망지역 물색에 나서고 있다.

(한국일보 92.9.4)

#### \* 延邊조선족 자치주 40돌

延邊조선족자치주 창립40돌 경축대회가 3일 상오 8시 延吉市 公園街 延吉인민체육장에서 6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치루어졌다.

朴東奎 延吉시장의 대회 선포로 시작된 대회에서 全哲洙주장은 대회를 통해 『우리 延吉동포들은 문화활동을 활발히 펴 국내외에 延邊을 널리 알려야 하며 경제성장을 달성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92.9.3, 한국일보 92.9.4)

#### \* 中國 6·25참전 사과 안했다

初代 中國대사 내정자인 盧戴源 駐中대사대리는 3일 韓中수교 교섭과정에서 中國은 인민의 용군의 6·25참전에 대해 사과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중앙, 동아일보 92.9.4)

#### \* 韓·中 平和협정 곧 체결

정부고위소식통은 4일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과의 국교정상화가 이뤄짐에 따라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일대 전기가 마련됐으며 中國측도 이에 원칙적으로 동감하고 있다고 밝히고 中國측은 韓中간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北韓에 대해 핵개발 중지와 함께 이같은 뜻을 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92.9.4)

## 정 치

#### \* 楊尙昆 공식사임

楊尙昆 중국 국가주석(85)은 늦어도 오는 11월에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제14차 전국인민대회(全人大) 이후 모든 공직으로부터 물러날 것이라고 그의 아들 楊鈺오밍이 4일 밝혔다.

(조선일보 92.8.5)

#### \* 政治改革 촉구

중국 공산당 기관지 人民日報는 5일 중국의 비효율적인 관료주의를 제거하는 것이 「모든 병폐의 근원」을 뿌리뽑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력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국민일보 92.8.6)

#### \* 鄧小平의 두 딸 상당한 영향력

中國 막후 최고 실력자 鄧小平(87)의 두 딸 鄧楠(45·국가과학기술위원회부주임·차관급)과 鄧榕(42·鄧의 개인비서)이 정치문제에까지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대만계 星島晚報가 6일 보도. (동아일보 92.8.7)

#### \* 中國개혁파 反左건의

中國공산당과 정부 및 군부의 원로지도자인 陸定一, 谷牧, 楊得志 등 3명의 개혁파원로가 최근 「反左」를 강력히 촉구한 내용의 연대서명 건의문을 黨中央委員會에 제출했다고 홍콩의 星

島日報가 12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2.8.13)

#### \* 中國 江澤民-李鵬체제 유지

中國 최고지도자 鄧小平은 黨 제14기 전국대표대회에서 현재의 당총서기 江澤民-국무원총리 李鵬체제를 존속시키기로 보수원로들과 타협을 보았다고 모닝 포스트紙가 15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8.15, 조선일보 92.8.16)

#### \* 中國 새총리 朱鎔基 확정

중국의 최고 실력자 鄧小平을 포함, 中國 지도자들은 지난달 말 이후 北戴河(河北省 피서지)에서 금년 가을 중국공산당대회

**\* 中國진출기업 손해 많다**

韓·中수교 이후 「지구촌 최대 황금시장」이라는 막대한 매력에만 이끌린 무분별하고 무계획한 對中國진출이 급증하고 있어 관련기업은 물론 국가적으로 막대한 손실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중인 기업들은 현지 정치체제와 商관행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도 없이 「일단 들어가고 보자」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터무니없는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국민일보 92.9.4)

**\* 韓·中은행 상호진출 러시**

韓·中수교 이후 은행·증권 등 두 나라 금융기관의 상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다.

8일 재무부와 은행·증권업계에 따르면 우리정부로부터 이미

설립인가를 받은 중국은행에 이어 중국인민 건설은행이 한국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일보 92.9.8)

**\* 中國기업 서울진출 러시**

韓·中수교 이후 양국간의 투자와 교역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기업들의 서울사무소 개설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기업들의 서울사무소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京漢海運 등 8개에 불과했으나 韓·中수교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던 지난 5월 이후 북경금성실업 등 10개 업체가 사무소 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일보 92.9.5)

**\* 中國 華東大「한국연구센터」설립**

중국 학계에 한국에 대한 관심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7월 중국 上海에 있는 華東사범대학은 한국학 연구기관인 「韓國研究中心」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한국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일보 92.9.4)

**\* 韓-中 항공협상 타결 실패**

지난 16-18일 북경에서 열린 韓·中항공회담은 양국간 항공협정 체결에 대한 기본 문안에는 합의했으나 서울-北京간 직항로 개설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한 채 끝났다고 교통부가 19일 발표했다.

(국민일보 92.9.19)

와 내년 봄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를 통해 정식으로 결정될 黨 및 정부내 지도부 인사에 대해 협의를 계속한 끝에 江澤民 당 총서기의 유임, 李鵬 총리의 국가주석 전임, 朱鎔基 부총리의 총리승격이라는 당지도부가 작성한 人事案을 15일까지 승인했다고 日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北京의 소식통을 인용, 보도했다.

(조선일보 92.8.17)

**\* 韓·中수교로 앞당길 듯**

台灣당국은 韓·中수교에도 불구하고 대륙과의 관계를 보다 개선해 나갈 것이며 가까운 장래에 그 동안 공식적으로 견지

해 온 不通航, 不通航, 不通郵 등 이른바 「3不通」정책을 폐기할 것이라고 홍콩의 대만 소식통이 30일 말했다.

(국민일보 92.8.31)

**\* 江澤民 主席검임**

중국공산당 총서기 江澤民이 黨제14기 전국대표대회(14全大會)에서 국가주석직을 검임토록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홍콩의 星島日報가 8일 보도했다.

(조선, 동아일보 92.9.9)

**\* 중국14全大 내달12일 개막**

中國공산당은 최고 실권자 鄧小平의 市場경제 지향 경제개혁 계획을 승인하고 앞으로 5년 동

안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黨대회인 제14차 전국대표대회(14全大會)를 오는 10월 12일 개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국민, 동아일보 92.9.23)



\* 中國 인공수정 급증

중국에서는 저임금을 충당하기 위해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들에게 자신의 정자를 팔려는 남성들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다고 홍콩의 중국계 통신사인 中國新聞이 5일 보도했다.

이 통신에 따르면 지난 2년 사이에 자녀가 없는 부부들 사이에 인공수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세태를 반영, 돈을 벌려는 목적으로 저임금노동자, 농부, 공무원, 학생들이 정자은행에 자신들의 정자를 파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

(한국, 동아일보 92.8.7)

\* 中國 개혁 여성들은 “찬밥”

鄧小平이 지휘하는 경제개혁 덕택에 중국인들의 생활은 전보다 훨씬 윤택해졌다. 그러나 6억의 중국여성들은 경제가 성장하는 것과 같은 속도로 남녀평등이 무너지고 있다는 데 당혹해 하고 있다.

자본주의 물질문화가 공산주의 도덕성을 대체하고 있다. 여성을 상품화한 서방의 광고가 시장 경제란 이름으로 중국인들을 새로이 세뇌시키고 있다.

(국민일보 92.8.8)

\* 中國 女子과학자 비율 세계 最高

사회주의의 장점을 증명하기 위해 교육기회를 늘리는 데 힘써온 중국은 드디어 그 결실로서 과학자, 기술자 및 교수 부문의 여성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관영

차이나 데일리紙가 1일 보도.

(동아일보 92.9.2)

\* 中國 태풍강습 이재민 6百萬 명

열대성폭풍 폴리가 지난달 30일과 31일 中國을 강타, 북부항구도시인 天津市에서는 창고, 독, 여객선터미널, 새우양식장 전답 등이 침수됐으며 浙江省과 福建省 등 동남부지역에서는 최소한 1백65명이 사망하고 6백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중국관영 新華통신이 이날 밝혔다.

(국민, 동아, 중앙일보 92.9.4)

\* 중국 첫 私立高 개교

중국 공산화 후 최초의 사립 고등학교가 동북부 黑龍江省에서 최근 문을 열어 학부모들의 관심이 집중. 北京에서 9백Km 떨어진 雙鴨山市에 개설된 이 학교는 3년 간 등록금이, 같은 기간 노동자 평균 임금의 절반 정도인 3만3천 원(약 46만 4천 원)으로 비싼 건 사실이나 졸업생의 40% 이상을 대학에 합격시키지 못하면 등록금을 전액 환불하겠다고 큰소리.

(중앙일보 92.9.4)

\* 中國 1億여 농민 農事포기

中國 12억 인구 가운데 9억을 차지하는 농촌인구 중 3분의 1인 3억 이상이 급속한 산업화에 따라 생계를 더이상 농토에 의존하지 않고 공장과 서비스업에서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을 꾸려가고 있다. 80년대초 산업화에 따른 농촌공동체의 해체는

이같은 추세 외에도 농촌인구의 대대적인 도시이주와 6천만으로 추정되는 유랑인구를 발생시켰다. (동아, 국민일보 92.9.9)

\* 중국인 일본 密入國 급증

한동안 뜸하던 중국인들의 일본밀입국이 급증, 오무라(大村) 수용소가 넘쳐나고 있다. 19일 일본법무성 집계에 의하면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적발된 중국인들의 집단밀입국은 9건에 2백 69명, 일본출입국 당국과 경찰 해상보안청에 비상이 걸려있다.

(한국일보 92.8.24)

\* 도를 더해가는 모택동열기

모택동열풍이 중국대륙에서 수그러들기는 커녕 확대되어 심화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들리는 바로는 어떤 운전기사들은 매일마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두 모여 교통사고를 피하게 해달라고 모택동상에 분향하며 기도한다고 한다. 이것도 영험이 많다는 소문이 하나 건너 둘에 퍼져나가 기사들마다 두어 흥내를 내기 시작.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지금 중국각지의 거리마다 모택동의 사진이나 상장, 서적을 팔거나 모택동을 칭송하는 문혁가곡 카세트를 파는 노점상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알려진 바로는 모택동 사진이 3년 이래 지금까지 이미 천백만 장 이상 인쇄되었다고 한다.

(《星島日報》92.4.15)

**\* 希望工程의 중국아동교육을 위한 경비**

「중국청소년 발전기금회」는 오늘 북경에서 새로운 希望工程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활동은 빈곤지역의 배움의 기회를 잃은 아동들을 돕기 위한 연금 조성에 그 목적이있으며 중국에는 매년 빈곤으로 인해 배움의 기회를 잃은 소학교 아동들이 약 백만 명에 이른다고 이 회의 관리가 밝혔다.

중국청소년 발전기금회의 비서장 徐永光은 어제 본보 기자와 장거리 전화의 취재에 응해 중국이 현재 비록 9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는 있지만 빈곤지역에서는 학령아동들이 의무교육의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빈곤으로 말미암아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전국 23개 성 자치구에 퍼져있는데 현으로

모두 7백여 곳에 이른다고 밝혔다. (《明報》92.4.15)

**중국 곳곳의 한재와 수재 우박 등의 재해 발생**

중국 서남의 귀주성에는 금년 봄 천재가 빈번하여 3월 중순 이래로 全省의 86개현 중 55개가 우박과 홍수 등 재해를 입었다. 이 성은 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35명, 중상자가 362명에 이르고 있다. 농작물 피해 면적은 310만 묘(1묘는 6.667a)에 달하고 생산손실량은 1.7억 kg. 종자손실은 508kg에 이르고 있다. (《星島日報》92.5.4)

**\* 조잡한 가짜상품의 범람과 극성**

국가위생부약정국 국장 潘學田은 가짜 약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하면

서 1989년에 전국에서 총 6천여 건의 가짜약 사건을 조사처리했고 1990년에는 1만3천6백여 건, 1991년 10월말쯤에는 거의 만 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文匯報》92.4.19)

**\* 상해 최초의 증권투자가 자살사건**

상해에서 한 남자가 증권 투자로 인민폐로 6천여 원의 손해를 본 후 격분으로 인해 목매어 자살했다. 상해에서 증권시장이 선 지 1년여 만에 증권 때문에 목숨을 잃은 첫번째의 사람인데 현지 신문들은 증권투자자들이 반드시 위험성을 인식하고 맹목적이지 말고 좀더 이성적일 것을 호소하는 글을 실었다.

(《明報》92.5.16)

**경 제**

**\* 중국 株式도입 실패 가능성**

중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주식시장의 확대에 따른 공산당권력의 위축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주식제도 도입 등 자본주의 실험이 실패할 수 있다고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誌가 10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7.10)

**\* 中國 국영기업 재편 “몸살”**

고도성장을 거듭해온 중국 경제가 국영기업 재편이란 난제에 부딪쳐 몸살을 앓고 있다.

을 들어 본격화된 국영기업의

대량 감원, 임금 인하, 정부보조금 삭감 등 개혁조치로 인해 노동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이 문제는 중국 경제 뿐 아니라 정치·사회 전반에 불안요소로 등장했다.

(한겨레신문 92.7.31)

**\* 기업가 黨員 中國 계급투쟁 명예벗어**

중국 공산당원들이 점차 계급투쟁이라는 명예를 벗어던지고 한때 금지 되었던 개인기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중국 관영 신문 新聞摘要가 3일 보도. 이 신

문은 지난 91년말 5천만 공산당원 중 0.4%인 약 20만 명이 사기업가로 등록했다고.

(국민일보 92.8.4)

**\* 中國 주식청약 “대혼란”**

9일 中國 심천 경제특구에서 행해진 주식신주공모청약에 투자자 50만 명이 몰려 큰 혼잡이 빚어졌으며 이들 인파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1명이 사망하고 1백여 명이 부상했다고 홍콩 언론들이 이날 보도했다.

(동아일보 92.8.10)

**\* 中國 경제 12% 成長**

中國은 올상반기중 경제가 국민총생산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나 신장했다고 관영 英字紙 차이나데일리가 2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92.9.3)

**\* 改革 · 개방성과 만족**

中國은 최단시일내에 개혁개방의 상징인 심천경제특구를 현재보다 약 6배 확장할 것이라고 심천의 한 고위관리가 7일 밝혔다.

중국의 최고실권자인 鄧小平은 금년 봄에 심천을 방문, 개방개혁의 성과에 만족을 표시하고 더욱 이를 가속화할 것을 독려한 바 있다. (한국일보, 중앙경제신문 92.9.8)

**\* 중국 자본주의 特講**

中國의 개혁과 경제학자들이 中國공산당 제14기 전국대표대회(14全大會)를 앞두고 최근 1

천여 명의 고위 黨·政·軍 간부들에게 시장경제에 관한 특별강의를 함으로써 黨內에 시장경제도입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紙가 21일 보도했다.

(국민일보 92.9.22)

**\* 中國 「産學협력」 본격화**

中國의 산업체와 대학 및 과학연구소들은 오는 95년까지 5만 종의 신기술과 신제품을 공동개발해 산업에 응용토록하며 일부 선진기술부문에서도 앞으로 2~5년 안에 年 10억 元(약 1천4백억 원) 상당의 첨단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첨단기술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고 중국계 大公報가 11일 보도했다.

(동아일보 92.8.12)

**\* 中國, 20개도시 추가개방**

中國은 최근 연해 및 일부강변도시들을 개방한 데 이어 揚

子江(長江)의 5개도시와 북방의 4개도시 및 11개 내륙省都 등 20개 도시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홍콩의 중국계 신문들이 14일 보도했다.

(조선일보 92.8.16)

**\* 中國, 은행 컴퓨터網 추진**

중국은 국내 주요 도시의 은행들을 서로 연결하는 컴퓨터네트워크와 증권거래를 위한 컴퓨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중국정부 고위소식통이 최근 밝혔다. (조선일보 92.8.17)

**\* 中國 7개市 외국銀지점 허용**

中國정부는 최근 大連 天津 青島 南京 寧波 福州 廣州 등 연해 7개도시에 외국은행의 지점개설을 인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5일 북경발로 보도했다. (동아일보 92.8.17)



##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

1. 운남성의 가정교회들이 공안국에 의해 폐쇄 조치를 당하고 있다.

주님께서 운남성의 가정교회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이 오히려 가정교회들을 굳건히 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2. 하남성에 사이비교가 극성중이다.

주님께서 하남성에 바른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셔서 사이비교가 발붙일 곳이 없게 하소서.

3. 절강성 대주지역교회에 지도자가 부족하다.

주님께서 하루속히 대주지역에 지도자가 양성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셔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해소시켜 주소서.

4. 화서지역에 簡字성경과 신앙서적이 몹시 부족하다.

주님께서 이러한 서적들이 어려움 없이 유입되게 하셔서 영적성장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5. 농촌에서 도시로 청년들이 유입되고 있다.

주님께서 이러한 크리스천 청년들이 도시에서도 교회생활을 하고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6. 중국당국이 성경 등 신앙서적 유입을 극도로 통제하고 있다.

주님께서 중공당국의 정책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러한 통제를 해제하도록 도우소서.

7. 중국에도 종말론이 극성하고 있다.

주님께서 중국교회와 동북삼성의 조선족교회에 종말론에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종말론을 가지고 활동하는 자들로 인해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우소서.

8. 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의 애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주님께서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부작용을 줄여주시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선교에 유리한 국면으로 나가도록 인도하소서.

9. 한중수교 이후 좀 더 신중한 중국선교가 요청되고 있다.

주님께서 한국교회가 사역에 있어 유기적으로 연합하고 중국의 특수한 종교상황을 연구·이해하게 하시어 효과적인 중국선교를 이루도록 도우소서.

10. 중국선교에 언어의 준비가 중요하다.

주님께서 '중국선교훈련원'을 비롯한 각종 선교언어 훈련기관을 관장해 주셔서 이 기관을 통해 숙달된 언어로 중국선교에 나설 인재들이 쏟아져 나오게 하소서.

11. 중국의 20개 도시가 추가 개방되었다.

주님께서 개방되는 도시를 따라 복음이 중국에 효과적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소서.

12. 중국에 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주님께서 이 재난 가운데 있는 중국인들이 주님의 교회들을 통해 구호를 받게 하시고 또 복음으로 위로받게 하소서.

13. 중국수교 이후 급속한 한국기업의 중국 현지진출과 중국의 한국진출이 예상되고 있다.

주님께서 이런 상황들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종들이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 알림

### \* 중국선교세미나

· 중국어문선교회 정기세미나가 10월 26일 오후 7시, 한국기독교 백주년기념관 4층 1연수실에 '한중수교와 중국선교'를 주제로(강사: 중국어문선교회 이요한 총무)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594-8038)로 해주십시오.

· 중국복음선교회의 제9회 중국선교대회가 '올바른 중국선교'를 주제로 11월 5~7일 여한 중화기독교 한성교회(중구 정동25번지 구 MBC앞)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Tel: 778-3626로 문의 바랍니다.

### \* 기념예배 및 총회

중국어문선교회의 창립 3주년기념예배와 총회가 12월 7일(월) 오후 7:00 방배동 이수성결교회에서 거행될 예정입니다.

### \* 인천 중국배 승선사역

인천외항선교회와 중국어문선교회에서는 인천항에 정박중인 중국배에 올라 함께 선교할 분들을

을 찾습니다. 간단한 중국어로 찬양을 익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중국어문선교회 인천지회(032-872-0742)나 인천외항선교회(032-763-5303)로 해주십시오.

### \* 토요중국학 강좌

매월 첫째·셋째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중국어문선교회 사무실에서 중국학 강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관련된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게 될 이 강좌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 광고 게재

'중국을 주께로'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를 위한 열린마당입니다. 중국선교를 위해 널리 알리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 편집후기

\* 전진을 위한 후퇴라지만... 잡지의 생명이 기일엄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함을 거듭 사과드립니다. - 출판부일동 -

\* 한중수교는 가히 한반도를 흔들 만큼의 강진? 덕분에 바빴던 출판부. 앞으로 중국선교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실지... - 혜

\* 이번호에는 한중수교에 따른 중국선교에 대한 변화에 가닥을 잡아본다는 의미로 실어보았습니다. 참고되시길 - 혜

\* '중국을 위한 중보기도'는 각종의 선교정보와 국내외 신문기사를 토대로 작성된 것입니다. 중국을 위해 기도하실 때 구체적 제목으로 활용하셨으면 - 석

\* 큰 피해 없는 여름과 풍성한 수확을 주신 주님께 우리 모두 감사! 독자 여러분의 가정마다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가을 하늘처럼 깃드시기를 기원합니다. -俊

## 중국을 주께로 헌금

「중국을 주께로」는 한국교회의 중국선교사역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하여 격월간으로 발행되는 중국선교 전문지입니다. 중국선교에 뜻을 두고 있는 보다는 많은 교회나 개인에게 이책이 보급되도록 제작비를 도울 선교헌금을 보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송금방법: 한일은행 081-167289-12-001  
국민은행 084-01-0283-625  
제일은행 378-10-063999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주께로  
중국을 주께로